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하
나님의 만드신 그 뜻대로 오직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
을 살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3월 11일 (토) 제 162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인 81%, 인간복제 여전히 반대

퓨리서치, 복제 양 '돌리' 탄생 20주년 맞아 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밝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여럿 있지만 그 중 인간이 인위
적으로 만들어낸 동물 중엔 단연 복제된 양 한 마리가 가장 유명
할 것이다. 돌리는 최초로 복제된 동물은 아니며 1902년 스위스의
스페만이 도롱뇽을 복제했던 것을 최초의 복제 실험으로 보고 있
다. 그밖에도 1952년 미국의 브릭스와 킹의 개구리가 있었고 생쥐
(1981), 면양(1986), 토끼(1988), 소와 돼지(1989) 등의 수많은
실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쩌서 복제양 돌리만 이렇게 유명하
게 된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돌리는 세계 최초로 생식세포
가 아닌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이

전까지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복제가 가능했
지만 세포 내의 핵 제거 및 치환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적인
세포로도 복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퓨리서치'는 복제양 돌리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지나달 27일 즉 탄생 2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의 복제에 대한 입
장 즉 복제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복제에 여
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특히 인간복제에는 반대하는 입장
을 보였다(20 years after Dolly the sheep's debut, Americans
remain skeptical of cloning).



복제 양 돌리 탄생 2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의 복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미국
인들은 복제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먼저 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
다양한 의미의 복제가 있지만 이곳에서 말
하는 복제는 한 생명체의 DNA를 추출해
원 개체와 같은 DNA를 가진 개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적인 복제로 일란성 쌍
둥이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수정란이 어떠
한 이유로 인해 두개로 갈라져 각각 독립된
개체가 된 것으로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동
일한 인본이다.

처음에 시도했던 복제법은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로 앞서 서술했다시피, 1902년
의 도롱뇽 복제를 최초로 친다. 도롱뇽의
수정란이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 순간,
갓난아이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수정란을
나누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였
다. 이를테면, 일란성쌍둥이의 그것을 인위
적으로 한 것.

1952년에는 미국의 브릭스와 킹이 개구
리 수정란의 핵을 제거하고 개구리 태아에
서 추출한 핵을 넣어 복제 개구리를 만들었
다. 이 경우에는 핵을 제공한 개구리 태아
가 원본인 복제 개구리가 된다. 복제의 핵
심인 DNA가 핵에 들어 있기 때문. 1962년
에는 영국의 거든이 개구리의 난자에서 핵
을 제거하고 다른 올챙이 장자세포의 핵을
이식해 다수의 복제 개구리를 만드는 데 성
공했다. 포유류가 아닌 동물에서 체세포 복
제에 성공한 첫 사례다. 이후 포유류에 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바로 '복제양 돌리'가
되겠다.

당시, 영국 에든버러대학 로슬린연구소
연구진이 다 자란 양의 몸에서 채취한 세포
로 양을 복제했다고 발표했을 때 과학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는 네이
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소설 같았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론적으로는 체세포를 다시 배아상태로 돌
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피부세포나 혈액세포를 배아줄기세
포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체세포에 유전자
4개를 넣어 분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2012년 노벨생리의
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네이처 뉴스에서는 돌리를 복제한
이안 윌버트 에든버러대학 교수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적으로는 소를 복제하는 것이

좋지만 양을 택한 이유에 대해 실용적인 목
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는 세대가 길고
연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양은 비용
이 덜 드는데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이 양의 생식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
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밝혔다.

복제할 동물을 택한 뒤 실제 돌리를 복제
하기까지 반복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우선
다 자란 양의 몸에서 체세포를 채취해 '세포
핵' 부분만 따로 분리해 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양의 난자를 꺼내 세포핵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분리해 놓은 핵을 넣는다. 일명 '
핵치환' 기법이다.

이런 실험을 반복하다 결국

3(3면으로 계속)

'시간'의 그릇에 '은혜'와 '진리' 담아야

스몰그룹, 컴, 헨리 클라우드/존 타운센드의 소그룹 성장 노하우 3원소 소개

교회에선 소그룹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소그룹 인도자들도 곳곳에서 세움
받는다. 요즘처럼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임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된 적
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그룹 인도자로 부름 받은 헌신된 교인들은 정작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다. 자신의 소양이 소그룹 인도자로 적
합한지 의문스럽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서는 보람보다 회의가 앞선다. 한 학
기를 채 마치기 전에 포기하고픈 바람이 간절해진다. 헌신된 마음만으로는 다
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한다.

절정은 있으나 노하우가 부족한 탓이다. 헌신된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그룹에 관한 신학서적이거나 이론서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과 몸을 부딪쳐가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쉽고
정확히 적용해갈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헨리 클라우드(Henry
Cloud)와 존(John Townsend) 박사는 자신들만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소그룹 인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성장의 3원소'를 소개해준다.

다락방이건 어떠한 소그룹 모임의
지도자인 우리들 모두에게는 '더 나은
상태'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는 여
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패
해오고 있다. 실패는 죄책감, 수치심,
정죄감, 열등감을 낳는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분이 필요하다. 바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이다.

은혜

크리스천들은 은혜를 용서나 무조
건적 수용이나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그것
도 하나님 은혜의 단면이지만 은혜는
그 이상이다. 은혜란 우리가 자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것이다. 은혜란 자력 없는 호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을 주시는 것인데 단 우리는 그것을
얻거나 벌거나 자격을 갖추거나-소그
룹의 중요한 열쇠는 다음 단어인데-

만들어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은혜는 우리가 창출하거나 만들
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좋은 소그룹에서 사람들은 스
스로 주거나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른 사람에게서 받는다.

'은혜'란 차 곁에 다가가 작동에 필
요한 것을 주는 기름뿜프이다. 기름이
떨어진 차에게 '알아서 기름을 넣으라
고,' "더 헌신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기름 없이도 달릴 수 있
었다면 차는 달렸을 것이다. 소그룹은
용서와 수용 이상의 은혜를 줄 수 있
는 그룹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
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여야 한다.

진리

진리란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 삶
을 구성하는 실체다.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리를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소그룹
연구로 입증되는 내용의 일부분이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시론
은혜론 목사
2면

'아메리칸 드림'
여전히 살아 있다!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4면

피종진 목사 초청 3월 국·내외 부흥성회



CTS 기독교TV 방송 생명의 말씀 - 매주 토요일 오후 4:30 인터넷 : www.cts.tv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Table with 3 columns: Date/Time, Location, and Contact Info. Lists 31 events for the 204th Overseas Assembly.

# '아메리칸 드림' 여전히 살아 있다!

##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중 10%는 이민자 출신... 반 이민정서확산에도 성공사례 이어져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포자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미국 포브스 표지를 장식한 더글라스 리온, 세라이어 캐피탈 파트너는 이민자 정신을 3대째 물려주고 있다. 1968년 이탈리아를 떠나올 때 리온은 중학생이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Forbes 400: The Full List Of The Richest People In

America 2016), 리온의 부모는 아들이 '유럽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회계층의 상하이동'이 가능한 삶을 살기 바랐다. 코넬대학에 입학한 리온은 컬럼비아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으로 진학했다. 그는 "미국 유학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며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런 정신을 분명 나에게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의 400대 부자 중 10% 이상은 리온과 같은 이민자 출신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브스 400대 부자 중 42명은 21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귀화 시민이다. 포브스는 "귀화 시민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한 성과"라며 "창업가의 성공이라는 것대로 측정할 때 미국 이민자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평가했다.



을 향한 무한한 기회를 누리게 한다. 유튜브로 백만장자가 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셸 판 IPSY 창업자가 대표적인 예다. 그녀의 부모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베트남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 도박중독이었던 아버지는 판이 6살 때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가 두 번의 이혼을 한 뒤에는 쉘터된 아파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처지가 됐고, 정부의 식량 보조로 살아야했던 적도 있었다.

## 1세대 42명, 2세대는 57명... 이민자 형그리정신 2세대까지 지속 미 상위 10개 대학 창출 특허 중 4분의3은 이민자 손에서 탄생

400대 부자 중 2세대 이민자는 57명이다. 포브스는 "2세대 이민자는 400대 부자 전체의 14%를 차지한다"며 "이민자 세대의 형그리정신이 적어도 1세대 동안은 지속된다"고 총평했다. 18세 이상 미국 시민 중 2세대 이민자의 비율은 약 6%다.

10년 전, 포브스 400대 부자에서 이민자의 수는 35명이었고, 20년 전에는 26명, 30년 전에는 20명에 불과했다. 국부유출, 안보위협 등 이민자를 겨냥한 온갖 정치적 수사에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이민자의 물결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나라다. 2016년 퓨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자가 근면함과 재능으로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 미국인이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민자를 "미국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3%였다.

근면함과 재능을 갖춘 이민자 중 실제 큰 성공을 이룬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상당수는 고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왔다. 세르게이 브린(구글 창업자)의 가족은 세르게이가 6살이 되던 해 유대인

에 대한 차별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왔다. 세계 어디를 가든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미국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모터스 창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립학교에 다녔으며, 루퍼트 머독(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의 부친은 호주에서 신문사를 경영하며 기사 작위를 받기까지 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eBay)의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아버지는 외과의사였고, 어머니는 언어학자였다.

배경은 다르지만, 이민자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다. 미국 카우프만 재단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태생의 미국인에 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2배가량 높다. 보디나는 환경에서 살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감내하기로 결정하는 이민이라는 행위 자체

가 창업가정신을 내포한다는 뜻이다.

유대인인 샘 젤(이퀴티그룹 인베스트먼트 회장)의 부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침공을 피해 폴란드를 떠나 미국으로 왔다. 샘 젤은 "아버지는 미국에 가면 길거리가 금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하곤 했다"며 "아버지와 가족이 미국으로 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행운을 누리는 것에 대해 한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샘 젤은 사모투자 그룹 이퀴티그룹 인베스트먼트를 경영하며 시카고트리뷴, LA타임스 등을 운영하는 미국의 미디어기업 트리뷴의 소유주다.

1세대 이민자의 '형그리 정신'은 2세대 이민자에게 도전

15살이 되었을 때 판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하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껏 멋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과 시간이 많은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글이었다. 2007년 블로그 독자 2명이 미셸의 화장기술을 알려달라 요청했고, 미셸은 자신만의 화장법을 담은 7분짜리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며 1인 미디어로 성장했다. 로레알에서 자신만의 메이크업라인이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벤처를 세운 그녀는 이제 리얼리티 TV 제작사 엔드몰(endemol)과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개국하기로 계약했다. 판은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8면으로 계속)

# 시론

## 나의 사순절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4세기 말경에 확립된 교회절기입니다. 우리들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사순절의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셨고, 40일간 시나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면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그리스도에게로의 재 헌신을 다짐하는 갱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동참과 의미를 깨달아 성도로서의 경건생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2017.4.16.)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는 일"입니다. 청소도 안하고, 설거지도 안하면 점점 냄새가 고약해집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이 냄새는 악령과 귀신을 부릅니다. 영혼과 마음과 심령의 정결, 생각과 말과 생활의 정결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부부, 부모, 형제 사이라도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히4:13) 집중적인 회개의 시간,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감추고 싶은 죄들을 다 끄집어내어 토설할 때, 주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 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 같은 참회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5:17)입니다. 사순절엔 매일매일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존재(고전15:31)로서 거듭나는 회개, 날이 갈수록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회개, 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회개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져, 매일매일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장 안에 넓혀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신을 꼭 막아버리는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의 피로 막힌 곳이 뚫려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막혔던 이 뻥 뚫린 "도착하는 기도", 나에게도 막혔던 뻥 뚫린 "도착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 무릎이 엉망이었습니다. 연유를 여쭙지만 좀처럼 대답을 안하시다가 계속 물어보니 그제서야 쑥스러듯 말씀하셨습니다. "방석도 깔지 않고 맨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보니 이 모양이 돼버렸네요." "기도제목이 하도 많아 하루 3시간씩 기도드린다는 집사님을 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우트된 축구선수 박지성님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님이 생각납니다. 온라인에 올려진 박지성님의 발 사진을 보면 그의 이적료가 약 74억원이나 되며 그의 연봉이 약 37억원이나 되는지 알고도 납니다. 가냘프고 어여쁜 발레리나의 것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형이 돼버린 발을 지니고 있는 강수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인 집사님의 무릎, 짓무르고 땅가진 만큼 주님의 은총 또한 크지 않을까요?

또한 이 기간에는 오락이나, 연극, 무용, 영화 등을 금하고 화려한 옷이나 화려로운 음식, 허영적인 행동을 금하는 금식, 절식, 자선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법,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나누는 일을 훈련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령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40일간 절제하기, 예를 들면 커피, 고기, 초콜릿, 술, 게임, 골프 등 그리고 하루에 1기 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하기 등을 통한 40일 절제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일을 지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의 못된 마음과 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한 나의 말투,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의 습관, 입으로는 주님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앞서는 나의 외식 등등 즉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절제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교회의 절기임과 동시에 이렇게 "나의 사순절"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매마르지 않고 우리들 마음에, 가정에, 자녀들에, 교회에 흐르기를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절제와 금식과 인내를 통한 경건을 연습하시는 복된 40일간의 여정, "죄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순절"을 사시고, 이 여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p><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 조종사가 되는 길,

### B.S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 항공학 학사과정 및 조종사면장 과정

Aviation Management and Flight (Pilot) 항공기 조종사  
Aviation Management (Helicopter Pilot) 헬리콥터 조종사  
Flight Dispatcher (Air Traffic Control) 운항관리사 과정  
Flight Attendant (Cabin Crew) 승무원과정

항공학과 - Credits: All credits will be considered in your transfer. 타 대학 성적 최대한 인정하며 학사편입 가능하다.  
Visas: When your admission requirements have been completed, you will be issued the I-20 (F-1 Visa) or the DS-2019 (J-1 Visa) as needed.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국제 학생에게는 SEVIS I-20 혹은 J-1 Visa 를 발행한다.  
미국 항공우주국 FAA 에서 발행하는 국제항공 조종사 면허증을 받아 국제 항공사에 취업할수 있음.

**SEVIS I-20. 발행, J - I Visa 발행. 편, 입학. 저렴한 학비, 취업보장,**

**Midwest University**  
Wentzville, MO. USA  
www.midwest.edu  
email: usa@midwest.edu  
Phone: (636) 327-4645

# 미국인 81%, 인간복제 여전히 반대

(1면에서 계속)

새로 넣은 핵과 난자를 전기로 융합해 수정란을 얻고, 이 수정란을 다시 다른 암컷 양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돌리는 무려 277번의 시도 끝에 태어났다. 연구 결과는 1997년 2월 27일 '네이처'에 실렸다.

그러나 돌리의 삶은 탄생과정만큼이나 만만치 않았다. 돌리는 어린 나이부터 노화가 진행됐고 관절염을 앓았다. 결국 폐질환으로 2003년 눈을 감았다. 현재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박제로 전시돼 있다.

돌리 탄생 이후 동물복제 연구는 본격화됐다. 복제돼지와 소, 개 등이 잇달아 나왔다. 한마디로, 수컷 없이도 생명이 만들어져, 식량난 문제해결과 난치병 치료연구에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제양 돌리의 소개는 지구촌에 곧바로 복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열게 됐고, 그 실용성과 이에 준하는 생명윤리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40개 국가에서는 인간복제가 금지되고,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이렇다할만한 금지법안이 만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서 퓨리서치는 다음과 같은 미국인들의 5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한다:

- 1. 아직까지 인간복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복제 양 돌리를 비롯해서, 개, 돼지, 소, 말 그리고 고양이들이 복제됐지만 인간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유전적인 실수들이 발생해 돌리처럼 일찍 죽거나 고통을 당하

며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많은 나라에서 과학자들은 의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인간 태아줄기세포 복제에는 성공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것에는 설계도나 제조공정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2. 미국인 중 81%는 인간복제는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갤럽).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1년 이후로 압도적일 정도로 미국인들의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에 2016년, 오직 13%의 성인들만이 인간복제의 도덕적 타당성을 찬성했다.

3. 미국인들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인다.

2010년에 행해진 동 리서치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인간복제의 실현 가능성에 거의 전반적인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2050년이 되면, 인간복제가 실현된다고 48%가, 반면에 49%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 멸종된 동물에 대한 복제 실현성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된다.

맘모스와 같이 이미 멸종된 동물의 복제 가능성에도 미국인들은 찬반 입장이 서로 양립된다. 영화 "쥬라식 공원"처럼, 공룡의 알이나 화석에서 채취한 세포를 통해 복제가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2013년에 행한 설문에서, 2050년에는 이러한 세포를 통한 멸종된 동물 복제가 실현된다고 50%는 믿고 있지만, 48%는 그러한 과학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5. 아직까지 소수의 미국인들만이 동물복제를 통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2016년 갤럽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과반수이상 즉 60%는 복제 양 돌리 출현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인간의 도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34%는 도덕보다는 그 실용성에 무게 중심을 더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01년 이후로 이러한 수치는 현재까지 그대로다.

결론으로, 미국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정권 이후 8년간 규제에 묶여있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허용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줄기세포 복제연구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지구촌은 복제연구로 한창이다.

다시 말해서, 일찍이 정부의 지원 아래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든 영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까지, 선진국들 간 줄기세포 개발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의 존재론적 지위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줄기세포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교계와 사회단체에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한쪽에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각종 퇴행성 질환을 포함해 당뇨병, 백혈병 등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치료법"으로서의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존엄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으로서의 얼굴을 지닌 줄기세포 복제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성경은 죽음이 아닌 "살림의 문화"를 선포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소중하며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1면에서 계속)

소그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우리 마음을 열고(시51:6), 우리 모습의 진상을 털어놓으며(약5:16), 진리로 서로 바로잡아주며(엡4:25, 잠15:32), 지지를 통해 서로의 죄를 견제하고(마18:15-19), 그 결과 자기 내면 깊은 곳의 진상을 알게 된다(시139:23, 마23:26, 막 7:20-23). "내 말에 거하는" 법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고 그것을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요8:31-32).

진리 경험을 매주 한 편의 설교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소그룹은 진리를 아주 중요한 방식들로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장이다.

### 은혜와 진리의 균형

소그룹은 은혜만 있거나 진리만 있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온갖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룹을 만나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존재나 행위 방식을 배우지 못했거나 현재 당신의 존재나 행위 방식에 관해 배우고 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지시와 감시와 지적과 틀과

규칙과 변화의 압력을 경험하는 진리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안전한 분위기와 수용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아무리 해도 못다한 느낌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기준은 강하지만 용서는 약하고, 해낼 수 없는 의무만 너무 많이 주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동시 구현이시다(요1:14). 소그룹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화신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 시간

은혜와 진리라는 성분은 즉각적 성장을 낳지 않는다. 그것이 작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리더로서 소그룹 활동에 할당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구성원들이

대면하여 만나 업무를 수행하는 뜻 깊은 시간이다. 그룹 내의 변화와 성장이 왜 시간을 요하는지 이해하면, 당신도 구성원들도 시간과 싸우기보다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시간과 싸우면 언제나 시간이 이긴다.

변화와 성장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내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연습은 실패를 낳고 실패는 재학습을 낳고 재학습은 성장을 낳는다.

결론으로, 모든 소그룹 현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게 경험되는 양질의 소그룹 시간들을 풍성히 가져 '더 나은 상태'로의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한다.

**3월 12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시계 오전 2시를 3시로 돌려야**

올해 서머타임은 3월 12일(주)부터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시간을 돌려 놓아야 한다.

# 원로칼럼

## 전도, 앞장서다(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침체에 빠진 총회를 전도하는 총회로 총회 전도부장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필자가 속한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 지속 성장이 둔화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을 무렵 총회 전도부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필자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교단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역시 내린 결론은 전도하는 길이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 사이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세계 10대 대형교회가 모두 한국교회라는 오만에 빠진 채 전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었다. 수차례 회의 거듭하고 증빙자료집을 만들어 총회 전체 회의에 전도운동을 헌의했다. 헌의 명칭은 '만사운동'이었다. 당시 통합교단의 교세는 5천 교회에 교인은 2백만 정도였다. 그것을 1만 교회에 4백만 교인 운동으로 확산하자는 제안을 내걸었다. 전도는 갑론을박 시시비비를 따질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지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제안 설명과 함께 역설하였고 전 총대들이 기립박수로 가결했다.

문제는 후속작업이었다. 곧바로 '총회전도학교'를 만들고 필자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전도전문가와 목회자들로 운영위원회와 교수진을 구성하고 곧바로 교재개발에 착수했다. 순차를 따라 개발한 교재는 "개인 전도법", "가족 전도법", "직장 전도법", "전화 전도법", "학원 전도법" 등 전도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했다. 이어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 대상은 담임목사로 제한했다. 이유는 전도는 담임목사가 앞장서서 총괄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제는 훈련에 참가한 사람만 구입할 수 있게 했고 사적 판매는 일절 하지 않았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속에는 반드시 현장전도를 포함시켰다. 훈련생 두 사람씩으로 팀을 만들고 지정된 현장에 나가 전도를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훈련이 끝나면 수료식과 함께 자격증을 수여했고, 출석미달이거나 보고가 부실하면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이 운동은 총회에 속한 교회들의 잠을 깨웠고 교단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가끔 전도는 해야 되겠고 담임목사는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목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단 한 곳도 전도운동이 성공하지 못했고 정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도는 담임목사가 앞장서야 성공할 수 있다. 수료증을 받은 담임목사는 개교회로 돌아가 전도학교를 만들고 전도운동을 활성화하는가 하면,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거둔 실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훗날 일이지만 훈련 중인 목사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현장실습을 나갈 때 개 교회 iamcspark@hanmail.net

에서 전도훈련을 받은 평신도 두 사람씩을 동행시켰다. 동행한 평신도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방에서 차 마시고 앉아 있는 팀, 목적지까지 가긴 했지만 차마 전도의 입을 열지 못해 되돌아서는 팀, 무작위로 만난 대상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놓쳐 버리는 팀 등 평신도들의 표현은 "목사님들, 전도 잘 못하시더군요"였다. 입만 열면 될 것 같지만 전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구속의 감격과 빛진 자의 심정만 살아 숨나면 전도처럼 쉬운 신앙행위가 어디 있을까?

총회전도학교와 함께 시작한 것이 전국 개척교회 지도를 만든 일이다. 1년간 전문가에게 위촉, 전국 시군면 단위로 교회가 없는 곳,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을 조사했다. 인구, 땅값, 교회를 신축할 경우 몇 평 정도라야 하는가,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천막일 경우 등 소요되는 경비의 얼마인가 등 교회 개척지도(로드맵)를 만들고 자료집을 책으로 펴냈다. 주먹구구식을 탈피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여러 과제 중 전도운동의 회복을 제철 수 없다. 물론 추락한 위상 때문에 "예수 믿으시다"라는 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잘못도 없으시다. 잘못이 있다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전도의 문을 잠그고 입을 닫는다면 타 종교에게 현장을 모조리 빼앗길 것이고, 교회는 영역이 좁아지고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옆집에 가스 폭발로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가스관을 막고 생식을 일삼는 사람은 없다. 조심히 가스를 활용한다. 전도는 기도와 말씀이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도로 폭발한다. 그래서 전도는 일과성 행사일 수도 없고 이벤트로 이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바쳤다. 그리고 성령강림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동기였고 핵심가치였다. 왜 전도 못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다. 안된다.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체면과 입장을, 자존심과 위치를 성령님의 역사 위에 놓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불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불 꺼진 교회는 영적 한대지방으로 쫓겨 변해가고 있다. 전도 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합시다

세금보고의 계절을 맞아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할 것을 한인교회와 동포사회에 호소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세금보고는 면제되지만, 교역자와 교회직원, 그리고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바르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인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관련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밝히고, 교인들에게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 납세자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의 탈세는 불법입니다. 탈세의 결과는 국가의 재정과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오며,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셋째,**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정직한 세금보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직한 세금 보고를 통해, 정직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한인사회가 되고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인운동입니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저의 걱정을 좀 덜어주세요

한국에 '혼족'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혼족, 즉 혼자 사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혼족들은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놀(혼자 놀기), 혼공(혼자 공부하기), 혼창(혼자 노래부르기) 등을 즐기며 돈도 절약하고, 더 이상 남의 눈

치를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원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혼족의 당당함과 용기는 부럽기조차 합니다. 혼족은 1인 가족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혼족이 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1인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신의 삶을 외롭게 사는 대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혼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며 염려가 생깁니다. 과연 그들은 혼자의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책임질 가족 없이 나만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한 삶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내가 돌보고 책임질 가족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눌 사람도 곁에 없다는 뜻이지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연약해져서 능동적이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막히거나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어서 혼자 고립될 것입니다. 또한 혼족의 삶에 익숙해지면 남에게 간섭이나 통제받을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

혼을 하거나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직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혼족이 늘어나는 사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렇다가 혼족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혼신(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소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기분과 만족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점점 영적으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인가요? 혼자만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고, 인생을 재정비하

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등등, 자신을 위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혼족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시다.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습시다. 반대로 마귀의 전략은 분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양 한 마리가 양 무리를 이탈해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윗 왕,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삼손,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 혼자 있을 때 패자가 되었습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외롭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외롭고 신앙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시다. 더 이상 혼족이 되지 마세요. 더욱(더불어 사는 쪽)이 되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혼족보다 더욱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담임목사인 저의 걱정을 덜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히 10:24-25, 현대인성경).

### 푸/른/초/장

김종국 목사  
(새언약교회, NJ)



아가서는 1901년에 전국적으로 흥년이 들었을 때에 윤덕영 황해감사는 5000만양을 과징하고 5만곡의 곡식을 착복함을 교회가 고발하여 그를 파면시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99년 3월1일 "대한 크리스도인회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소교인(기독교인)은 자기 자신도 부정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수령에게까지도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 믿

25-30%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엉터리로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실력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상실하다보니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항상 불안합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한심합니다. 기도도 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나무라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데 하물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면 더 싫어지곤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한 성 프랜시스(St. Francis)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2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죽 한그릇 씩을 놓고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째가 되자 그만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놓여있는 죽 그릇에 입을 대고 말았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히 성 프랜시스 제자가 되어 배고픔 하나 참지 못하여 죽을 먹다니' 하는 정죄의 눈으로 모두가 그를 바라봅니다. 이 때 스승인 프랜시스가 자기 앞에 놓인 죽을 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스승을 바라봅니다. '선생님마저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다니' 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바라봅니다. 임가의 묻은 죽을 닦으시면 스승인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 위함이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다른 형제를 정죄할 바에는 나는 먹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 6장 6-8절)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는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할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와 직장과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한군데라도 즐겁지 못하면 삶 자체가 즐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생활이 즐겁지 못하면 만사가 편치 못함을 우리는 한번쯤은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생활이 즐겁지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되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이냐 많은 제물이냐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선만 행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교훈은 구약시대에 시행된 제사행위와 같은 신앙행식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 및 형식주의적인 신앙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형식주의적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은 기쁨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이들을 드려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목의 열매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공의로 우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도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공의는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공의와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공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화들이 그 당시의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보면 관찰사직이 약 20만에, 수령직은 약 5만양에 거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

는 사람 한사람만 있으면 그 고을의 사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여 한양에 사포직을 옮겨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한국 초대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이유는 그 물속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금의 양이 2.8%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5:13)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최소한

찬송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인자'란 케세트(chesed)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steel best love', 직역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출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새벽을 깨워 아침을 주께 바치고,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마다 참석하는 것은 내 원대로

5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어린이의 고집스러움

어린이들은 병에 쉽게 노출되고 면역력이 약해 자주 아프거나 감기에 노출된다. 전염병이 오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대상도 어린이들이다. 영적인 어린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어린이와 같은 이들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거짓된 속책에 말려들어 쉽게 요동친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흔적은 있지만 굳게 서지 못함으로 결국은 떠밀리고 요동치는 믿음의 상태가 되고 만다.

물론 어린이에게도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소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때를 자칭하는 고집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온전하고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께 붙들려있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시험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고집스러움이다.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연약하기 짝이 없다. 속사람이

가 안 된다 것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것이 들어 가도록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셨음을 기억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는 것이다.

성경의 사울을 보면 그 마음의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인생과 가문과 말려진 나라까지 망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다윗을 보라.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의 죄에 비해서 그의 범죄는 실로 엄청난 다 할 것이다.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를 못했다. 사울은 자기 생각의 고집스러움이 말을 이기는 순간부터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예배의 실패, 하나님과의 교통의 실패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범죄에도 나란 선지자의 그 말이 그의 영혼에 터치되어 그 영혼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영혼의 소통

영적인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불통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열매들을 드러낸다. 양자로 갈리어진 한국적 상황은 고집스러운 불통의 현상 앞에 드러난 민낯의 열매일 따름이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은 도무지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저들 각자의 생각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라는 막장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다음(next) 순간, 다음 날, 다음 해 다음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어도, 지옥에서 보낼 다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음(next)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상식적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다음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무모한 인생을 가리켜 아둔하고 바보스럽다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적인 상황을 돌아보면, 다음(next)이라는 경우의 수는

어린이와 같은 극단적인 고집스러움에는 좋은 열매가 없다. 고집스러움은 불통의 열매만 양산한다. 육신의 불통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들리지 않게 한다. 영적 어둠이 존재함을 본다. 그 어둠의 중심에는 요동치는 감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임을 보게 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갈등이 그의 영혼과 주변을 지배함을 본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고집스러움과 불통이 영적인 문제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절실함을 보게 된다. 주님은 하나님과 불통한 세상가운데,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소통의 구원이 이뤄지기를 소망하셨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 닮은 소통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고집스러움을 가지면 미래를 볼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울 같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히 듣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목사님 기도 시에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단어 사용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이 바른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드렸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어법상으로 맞는지요?

-오렌지카운티 John Park

A: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교회의 대표 기도자들이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당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며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호칭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당신이라는 말은 극존칭이기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으로 2인칭입니다. 우리말 2인칭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는 다만 3인칭에서 극존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시 '당신', '기도드렸습니다'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 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미

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라는 호칭은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보태주어 자동차를 샀다고 합니다. 어느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 자동차를 샀습니다"란 표현과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보태어 이 자동차를 샀습니다"라는 표현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당신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고백 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이로소이다"에서 나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됩니다(딤후3:15, 히9:14, 계10:6, 고후3:3, 시18:46 시42:2, 삼상25:26). 기도 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기에 시간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기도가 끝날 때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과거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간구 내용은 소원이며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소원을 '기도하였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는 것이 어법상 옳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일칸사 제자들과교회)



소통과 불통, 영적인 어두움

- 새벽마다 나라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은가!

강건하게 세운바 되지 못한 결과이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마치 감성장애 아이가 자기 방문을 광하고 닫고 들어가기에 쉽게 쉽게 회피하고 숨어버린다. 변화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얻는 데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 진리적인 문제에는 쉽게 노출된다. 혼자 있는 외톨이 신앙을 유혹하는 마귀의 도움 때문이다. 한쪽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의 신앙은 때를 자칭하는 고집스러움만 있을 뿐, 결코 세상에 요동치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처럼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와 같은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통은 영적인 어둠의 흔적들

교주들과 이단들의 특징은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태선, 문선명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머리에 관을 썼다. 모자를 쓴다는 것인데, 특징은 나이가 먹으면 그걸 더 쓰고 자신을 가린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자가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 아니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여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 옳다는 것만 딱 붙들고 살아간다.

이들의 머리에 씌어진 관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근접하지 마라, 나는 누구의 말을 듣거나 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불통의 상징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는 게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영혼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려는 불통의 존재가 되고 만다. 혹여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상 대화

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 회복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삶의 고집스러움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될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영혼과 삶을 뒤흔들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중심의 생각-감정의 지배

사울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고집스러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영적 어둠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그 중심에 또한 요동치는 감정적인 요소가 지배적임을 보게 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의 영혼을 지배함을 본다. 악신이 영적 어둠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음을 본다.

간과 쓸개도 내어줄 것처럼 행하 다 가도, 미움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개입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고, 그렇게 쫓겨가고 싶고, 근처도 가고 싶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흔히 누군가를 향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고, 걸음걸이조차도 싫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영적 어둠의 세력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고집스런 감정으로 불통의 삶을 해결하는 길은 자기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들어야 한다. 영육간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뒤든지 자기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워야 한다. 내 중심에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고집스러운 불통

안중에 없는 듯이 극렬하게 대치함을 보게 된다. 물론, 오랜 세월 체득하게 된 자연적 인식은 결국 정치라는 것은 '표리부동'이 전형일지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회일비하는 백성들만 아파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불어 상호인정을 해하려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 극단적 혐오의 대립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 불통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불통의 존재는 누구인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으로 자신을 절대화시켜 소통을 회피하는 이들이다. 진영의 논리를 이해 못함이나, 결국은 지나갈 시대의 일들 앞에서 이를 슬기롭게 통합할 '어른이 존재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불통에 대한 아픔을 말하는 것이다.

어른이 없어야 하겠는가? 다만 귀막고 눈을 막고 있기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 듣지 못함이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음에 기인하며, 여전히 불통의 벽은 높아만 가는 것이라. 최근에는 한 가족안에서도 대립의 격화가 나타나며 말한다. 정치가 가족·친구·연인 사이도 갈라놓을 뿐 아니라, 밥 먹다가 남매끼리 먹살잡이를 하거나, 탄핵집회참가 여부를 놓고 부녀·모자간 전쟁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면 '수구 꼴통'으로 매도되기에 '꼰대' 취급 당할까봐, '찍힐까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입조심들을 하며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각자 민주주의를 또한 외친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정치얘기는 금지의 항목이다. 신앙은 지방과 연령별 선호마저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인지 무력한 마음이다.

소통가운데 다음 미래를 말함

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악신에 붙잡혀 나중에는 왕의 자리도 뺏기고 결국 자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개인, 가정, 교회의 일뿐 아니라 한국의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도 영적 어둠에 놓여진 고집스런 불통에서 시작이 된 것임을 안다. 소통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모든 불통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발걸음이 될 것이다.

소통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되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결과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실력 불순세력의 장난이 있다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협력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단,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에게 불통되지 않을 때 말이다. 탄핵결정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한국의 스승 목사님께 염려 근심을 토로하였는데, 한마디로 명료하게 정리하셨다. '새벽마다 나라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은가?' 아멘입니다.

davidnjon@yahoo.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축복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찬힐링센터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빛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중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4면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 다. 우리가 음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보다는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가지는 일체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께서 걸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걷는 삶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으름이 되고자하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요13장).

우리는 내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

을 주시고자 하는가, 또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지를 물어 보아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인자와 겸손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kimjongkug@hotmail.com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탈리쉬(TALYSH)



거의 10만명에 달하는 탈리쉬족이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 3만명 정도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동부에 있다. 그들은 카스피해를 따라 높고 산립이 우거진 탈리쉬 산맥에서부터 아열대의 해안 지방에 이르기까지 점예하게 대조되는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탈루숀(Talushon)"이라고 하며, 탈리쉬어라고 하는 인도-이란계 언어를 구사한다. 탈리쉬족은 모두 자기를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어도 유창하며 러시아어나 파시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카스피해의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중세 때 터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1600년대에 자신들의 독립 군주국(khanate)을 세웠다. 1800년대 초기에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탈리쉬인들은 러시아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벗어난 1991년까지 지속됐다. 오늘날 탈리쉬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과거의 이슬람 전통을 따라야 할지 현재의 서양 문화와 기술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삶의 모습**  
5개의 탈리쉬 종족의 생활양식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

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다수 탈리쉬인들은 농부들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쌀이 주요 작물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카스피해 근처 저지대에서는 차와 시트러스 과일을 재배한다. 저지대에 사는 많은 탈리쉬인들이 마늘, 양파, 호박, 멜론, 콩, 포도 등의 작물을 경작한다.

탈리쉬인 전부가 농부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련된 장인으로 주요 공예는 비단, 양탄자, 모피 생산 같은 것이다. 양철로 작업을 하거나 구두를 만든다든지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가옥에서 산다. 산악지대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르지 않은 돌로 만든 나지막한 지붕의 가옥에서 산다. 해안지역의 사람들은 갈대나 사초(줄기가 딱딱한 풀과 같은 식물)로 된 지붕이 있는 진흙집에서 산다. 집에는 대개 천장까지 이르는 높은 문이 있는데,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가 나갈 구멍이 지붕

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탈리쉬의 가옥에는 가구가 없지만 서양 스타일의 가구를 갖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다. 탈리쉬의 여자들은 한때는 얼굴에 베일을 쓰고 몸 전체를 완전히 덮은 길고 험렁한 옷으로 된 전통적인 무슬림 의상을 입었다. 오늘날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많은 탈리쉬 여성들은 전통의상을 버리고 서양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이슬람의 율법은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탈리쉬 남성들에게는 단 1명의 아내가 있다. 소년들은 대개 15-20세에 결혼하는 한편, 소녀들은 대개 12-16세에 시집간다. 신앙의 가족은 "케빈(kebin)"이라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과 카페티나 가정용품 등의 물품이 된다. 케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젊은 남자가 때로 결혼적령이 된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다.

**신앙**  
탈리쉬인들은 거의 100% 무슬

림이며, 주로 시아파에 속한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이며 교사, 신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성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후에 선행과 코란에 대한 지식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다른 무슬림과 같이 그들은 이슬람의 5개 의무를 준수하는데, 알라가 유일신이고 모하메드가 그의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충분히 자선하는 것, 금식, 메카로 순례여행을 하는 것 등이다. 탈리쉬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슬람 이전 종교의 몇몇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무와 숲에 큰 경외감을 가지며 나무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에 속한다. 그들은 또한 선과 악의 영의 존재를 믿는데, 가장 위험한 영은 "알라잔(Alazhan)"이라는 "붉은 여인"이다. 알라잔은 아기가 태어날 때와 유아기 때 여인들을 공격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의 3개 트랜스코카서스공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다. 높은 실업률과 오랜 전통의 부정부패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양자 모두 경제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로 "이슬람의 행위규범"을 엄격히 강화했다. 이 규범은 남자가 지도자이며 여자는 아이들과 집안일을 돌본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혁명 이후로 심각하게 증가했다. 오늘날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13만명의 탈리쉬인들 가운데에는 30명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 민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방송, 성경, 문서자료가 없고 선교단체는 탈리쉬족 중 어느 종족에 대해서도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녀와 야수' 디즈니 영화 최초로 게이 스토리 등장

디즈니 영화에서 최초로 동성애자가 등장했다. 이에 미국의 한 영화관은 동성애자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실사 애니메이션의 상영을 취소기로 결정했다.



16일 개봉(한국 기준) 영화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에 남자 하인 르푸(조쉬 게드)가 남자 주인공 개스톤(루크 에반스)을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전 디즈니 영화에서 등장인물을 동성애자로 설정한 적은 있지만 스토리로 다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또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디즈니 영화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고 있다.

빌 콘돈 감독은 최근 잡지 에디티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르푸는 언젠가 개스톤이 되고 싶어 하고, 개스톤에게 키스를 하고 싶어하며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라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이 캐릭터가 갖는 미묘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디즈니 역사상 최초로 선보인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앨라배마 주 헨나가르시에 있는 'Henagar Drive-In' 극장은 미녀와 야수 상영을 취소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극장 소유주는 극장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1세 딸, 8세 손자와 영화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영화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기독교인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심의 영화를 계속 상영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섹스, 누드, 동성애 그리고 저속한 언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건전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토피아'(2016)에서는 가수 가젤이 성전환자로, '도리를 찾아서'(2016)에는 레즈비언 커플 캐릭터가 등장한 바 있다.

#### 디즈니 만화에 동성 키스...발각

매주 방송되는 어린이용 디즈니 TV만화 영화에 남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 동성애 조장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7 엣지 모델을 시험하면서 문자 옵션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추가해 반발을 사고 있다.



2월 크리스천포스트와 코스모폴리탄 등 미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방영된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Star vs The Forces of Evil)'이하 스타의 모험일기에 문제의 장면이 나왔다. 이 만화영화는 마법왕국 무니의 공주인 10대 소녀 '스타 버터플라이'가 지구의 바른생활 소녀 '마르코 디아즈'와 함께 괴물을 물리치며 우정을 쌓아간다는 내용이다. 만화는 미국에서 매주 월요일 인기에 방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7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디즈니채널에서 방송 중이다. 문제의 장면은 '그냥 친구야(Just Friends)'편으로 스타와 마르코가 5인조 남성 아이들의 콘서트를 즐기는 상황에서 나왔다. 감미로운 댄스풍의 노래가 흐르자 관객들이 짝을 이루 입을 맞추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례 삽입됐다.

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오르면서 인터넷 논쟁으로 크게 번졌다. 미국 현지에서는 찬반으로 갈린 네티즌들이 감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동성애 찬성론자들은 페이스북에 "고마워 디즈니(Thank you Disney)"라거나 "동성애자 자존감을 세워준 일대 사건"이라며 반겼다. 반면 "어린이 만화에 왜 성적 이슈를 다루느냐. 어린이들이 이걸 봐야 하나" "할리우드는 최악. 그곳엔 도덕도 가치도 하나님도 없지" 등 비난도 쇄도했다. 유튜브 영상은 2일 오후 현재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 속에 동성 커플을 등장시키며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실제 TV시트콤인 '찰리야 부탁해'(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 수단서 첩자로 몰려 종신형 선고받은 기독교인 석방

체코 시민권자이자 오랜 기간 미국 순교자의 소리의 스태프로 일해 온 피터 야섹이 수단의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의 사면을 받고 수단 감옥에서 풀려났다. 피터는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고 한 사람의 치료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조금 준 이후 이슬람 수단 정권에 의해 체포됐다.



2일 한국 순교자회의는 간첩 행위와 불법 입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체코인 피터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피터는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29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수단법에 따르면 20년 투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범죄 혐의들로 인해 추가적으로 4년을 더 선고받았다.

판결이 나온 이후 수단과 체코 정부 간의 협상이 진행돼 왔고 결국 체코 외무부 장관인 루보미르 자오랄렉의 하루를 방문이 이루어졌다. 자오랄렉은 지난달 26일 오후 트위터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피터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의 석방이 알려졌다.

피터는 2015년 12월에 체포돼 그때부터 감옥에 있었다. 그는 1월에 수단의 한 범법으로부터 '정부와 전쟁을 벌이고', '군사 지역에서의 제한을 위반하고',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소문을 퍼뜨리고', '간첩 활동과 지역 사회 간의 분쟁을 조장'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터는 미국 순교자의 소리(VOM: The Voice of the Martyrs) 스태프의 일원으로서 15년이 넘도록 열정을 갖고 필박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왔다. 그는 아프리카를 두루 여행하며 VOM을 대신해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물질적 및 영적 원조를 직접 감독했다.

피터는 당초에 2명의 목사를 포함한 3명의 수단 남성들과 함께 재판 받았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쿠와 사말 목사의 범죄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는 석방됐다. 그러나 하산 압둘라힘 목사와 압둘모남 압둘마우라는 피터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두 수단은 각각 12년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

피터의 석방 소식에 한국 순교자의소리 폴리 현숙 박사는 "이 경험은 VOM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 빛난 피터의 믿음, 그리고 그의 가족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이자 동역자의 귀환을 환영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피터는 오랜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입원할 예정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회복하는 동안 사생활 존중을 당부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는 "피터가 휴식, 사색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가진 뒤, 자신의 경험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무슬림 난민 개종 잇따라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무슬림들이 살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수천 명이 개종했다는 분석도 있다.



6일 USA투데이와 크리스천포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정교회(Syrian Orthodox Church)의 조지 살리바 주교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약 100여명의 무슬림 시리아 피난민들의 개종을 받아들였다.

시리아정교회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된 기독교 일파다. 최근 이슬람국가(IS) 테러의 표적이 돼 납치와 살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부 라드완씨는 고향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지난 온 뒤 살리바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개종했다. 2년 전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는 "이후 교회에 나가게 됐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고 말했다. 살리바 주교는 진실한 믿음을 지녔는지 확인이 들 때에만 개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극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라드완씨는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칼에 찔린 적이 있다. 그의 아내는 안전을 위해 교회 밖에서 하잡을 쓰고 있다. 베이루트에 있는 복음주의교회도 한 여러 명의 시리아인들이 개종했다고 전했다.

복음주의교회측 관계자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절대 막을 수 없게 된다"면서 "우리 그가 진심으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레바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중동 지역에서 복음 라디오를 운영하는 캐나다의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무슬림이 개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간 무슬림 시리아 난민의 기독교 개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해 유럽으로 건너간 무슬림 난민들의 개종으로 유럽 교회에 크리스천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독일 베를린 외곽 스테글리츠의 기독교루터란트리니티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2012년 이후 3년 동안 난민 출신 신자가 급증했다. 2015년 기준 기존 독일인 신자 150명 외에 710명의 난민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 600명은 이란과 아프간 출신이다. 국민일보는 당시 독일 현지지를 찾아가 기독교 루터란트리니티교회 고트프리트 마르텐스 목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32세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란인은 "폭력은 사람들을 자유와 사랑으로 이끌지 못한다"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those who use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 중국 '종교탄압 강화'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발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억압의 수위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중국 내 자유교회들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8일 '중국(정부)의 영적 투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12년 중국의 새 지도부 확립 이후 종교별 박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시진핑 체제의 종교적 부흥과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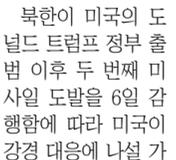
압, 저항'이란 부제를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개신교에 대한 탄압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회족 무슬림(이슬람교도)과 비슷한 추세로 악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중국에선 기독교 교세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정부 단위에서부터 종교적 박해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 개신교의 경우 지역 당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배당을 철거하는가 하면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도 많아졌다. 개신교 신자의 소송을 담당할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제한되는가 하면 성탄절을 비롯한 교계 연례행사들도 금지됐다.

전면적인 탄압은 중국 정부가 허가한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5년 7월 중국 저장성의 친정부 성향의 기독교 평의회가 지방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십자가를 떼어내는 정책적 실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결국 당(공산당)을 갈라놓고 인민을 분열시킨다"고 당국을 규탄할 정도였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서구식 가치의 위협과 외래종교의 '중국화(Sinicize)'를 내세웠는데, 시 주석이 2016년 봄 연설에서 "종교를 통한 외세의 침투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을 뒷받침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체제 이전부터도 개신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관제 목회자들이 이끄는 '애국 단체'들과 연계해 어용 교회의 울타리에 가둬두려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독립된 자유교회를 개척한 개신교도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사법적 위협의 대상이 됐다.

#### 힘 실리는 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론'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을 6일 감행함에 따라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시설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과 정권교체,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와 같은 초강경 조치들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 국무부는 "가용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았을 때는 미국이 경고 메시지만 보냈다. 그러나 북한이 재차 도발함에 따라 트럼프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다. 특히 지난달 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강경 옵션을 검토 중인 백악관은 이날 안에 대북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분노로 격앙됐다. 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어서 더욱 그랬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중국이 폭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처럼 중국은 김정은 피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더욱 난감해졌다.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에 반대하며,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를 뫼뫼그러 자제를 촉구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와중에 미사일을 쏜 게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을 지낸 데니스 윌더는 "김정은이 중국을 쫓아오는 효과도 노렸다"고 지적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 22. 최원식

최원식은 18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한국어 이름은 최원식이다. 그런데 최원실로도 적혀 있다. 그는 서울에서부터 성공회 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그의 세례명이고 미국에서 존(John)으로도 불렸다.

#### 하와이

최원식(Choi Won Sik)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기선 개척 호를 타고 1904년 1월 23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193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가 1905년에 하와이에 온 것으로도 되어있다. 당시 그는 24세의 총각이었다. 그의 어머니 최순이는 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906년에 하와이로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원식은 하와이 섬 코할라 지역 농장으로 이동한다.

#### 성 어거스틴 성공회 한인회중

1904년 5월 최원식은 그가 노동하는 하와이 섬 코할라 지역의 성 어거스틴 성공회를 방문하여 윌리엄 H. 펜톤-스미스 사제를 만나 한인들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펜톤-스미스 사제는 한인회중 목회를 신실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추천으로 하와이 성공회 주교 레스테릭 주교는 한인회중 사역을 위하여 최원식을 평신도 지도자로서 전도사로 임명한다. 이는 하와이 한인성공회의 시작이었고, 1896년 성공회 선교가 조선에서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코할라 지역의 한인회중은 두 번의 미사에 참석한다. 주일 아침에는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성당 인근에 흩어져 노동하는 하와이인, 포르투갈인, 중국인, 일본인 등 타민족과 함께 영어 미사에 참석했다. 주일 오후에는 최원식이 따로 인도하는 한국어 미사에 참석했다. 한인 회중들이 하나같이 신발을 벗고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의 타민족 회중에게 큰

패번 발췌서인 '조만민광'과 1903년 서울에서 출판한 '성회송가'를 미사에서 사용하였다. 1904년 9월 최원식은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주중 야간과 주일 오후에 한인 공부반을 개설하고 영어와 기독교에 관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한인 어린이들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의 영어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최원식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 한인회중 사역 이외에도 한인동포들이 노동하는 코할라 사탕수수 농장을 순회 전도하였고, 이로써 미사에 참석하는 한인의 수가 성장했다. 1905년 보고에 따르면 6명의 성공회 사제가 하와이 전 지역을 섬기고 있었는데 한인 사역은 코할라 지역 외에 다른 한 곳도 없었다. 다른 곳에는 한인 성공회 교인들이 채플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는데 통역은 없었다. 1905년 하와이 성공회는 이들 두 한인 사역자를 위하여 146불을 지출하였다. 최원식이 성 어거스틴 성공회를 떠난 후에도 이병준과 이윤일 등 한



성 어거스틴 성공회

지역의 삶의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몇몇 한국인 회중이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이올라니 학교

최원식은 하와이성공회 주교 레스테릭 사제의 추천으로 호놀룰루 소재 이올라니 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하와이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설치한 영어 특별반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최원식을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된 이중 언어 지도자로 세우려는 기대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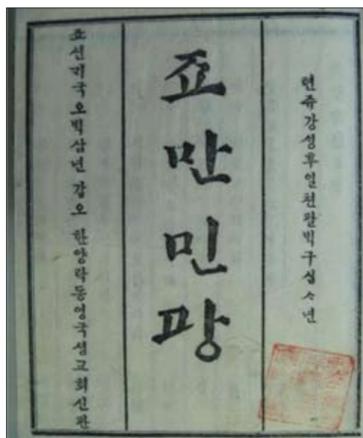
#### 성 어거스틴 성공회 케헤나 한인회중

1917년 코할라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하는 십여 한인동포들이 약 9마일 떨어진 케헤나(Kehena) 지역으로 이주하고, 땅을 임대하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 성공회 교인으로 하와이 한인회중 인도, 영어반 운영 등 한인미사 시 한글 성서 찬송가 '조만민광', '성회송가' 사용 1911년 샌프란시스코 이주 후 어머니와 6명의 가족 부양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한인회중들 중 하와이 이주 때 소지했던 1894년 서울에서 언문(한글)으로

국인 회중이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본 성당내의 채색유리창에서 발견된다. 이병준은 1905년 19세의 나이로 호놀룰루에 도착했는데 케헤나에서 옥수수 농장을 경영하다가 1951년에 코할라에서 트랙터 사고로 향년 65세에 세상을 떠났다. 코할라에서 태어난 그의 첫째 아들 이윤일은 1941년에 21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성 어거스틴 성공회는 1884년 사탕수수농장으로 이주한 영국인

가정에 의해서 세워진 후 코할라

Choy, Man Sik	Head	4	W	11/10	7	19	0
Peter Y	Son				7	19	0
Ada	daughter				7	19	0
Frank	Son				7	19	0
Doug	Married				7	19	0

1930년 인구조사. 최원실로 적혀있다. wd는 홀아버라는 뜻이다.

고 옥수수를 재배했다. 그들은 현금한 돈으로 2에이커의 대지를 구입하고 작은 성당을 건축했다. 본 회중은 성 어거스틴 성공회에 소속된 케헤나 한인회중이 된다. 케헤나 한인회중은 주일 오후에 성 어거스틴 성공회의 제임스 워

커(James Walker) 사제의 주도로 미사를 드렸다. 워커 사제는 미사를 드린 후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도 운영했다. 1929년에는 25명의 한인교인이 있었고, 본 케헤나 한인회중은 1935년까지 지속되었다. 2세대들이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연로한 교인들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교인이 없어 교회를 닫고 부지를 성 어거스틴 성공회에 기부했다.

####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한인 회중

최원식은 하와이성공회 주교 레스테릭의 추천으로 1908년 9월에 본 성공회 담임사제 레오폴드 크롤(Leopold Kroll) 신부들 도와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에 출석하는 한인회중을 섬기게 된다. 마우이 섬 라하이나와 인근 카아나팔리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약 200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거주한

중 일주일에 한 두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명씩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성공회 한인 사역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범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고 하니 목회의 위력을 알만하다.

한인회중 사역이 시작되던 1908년, 14명의 한인이 영세를 받았다. 그 해 11월 레스테릭 주교의 방문을 기회로 최원식은 홀리 이노센트 성당이 있는 라하이나 농장과 인근 카아나팔리와 울로발루에 있는 농장까지 순회전도를 하여 그가 집례하는 미사에 참석하는 수가 34명이나 되었다. 본 미사에서 최원식이 통역하였고 한국어 찬송을 불렀다.

최원식은 야간 영어반을 운영한다. 영어반 교사인 밴 디어린(Hilda Van Deerlin)은 호놀룰루의 성 메리 성공회로 전임되던 1909년 9월까지 가르쳤다. 이 영어반은 최원식이 본 성공회에 부임하기 이전인 1907년부터 시작했는데 본 성공회 랄프 웨이모스(Ralph Weymouth) 사제를 돕기 위하여 온 밴 디어린에게 한인 회중들이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개설되었다. 1908년에 웨이모스 사제가 은퇴한 후 레오폴드 크롤 사제가 부임하면서 최원식은 주중 학교도 개설했다.

크롤 사제가 호놀룰루로 전임되던 1년이 되던 1911년의 여름, 공부를 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기까지 약 3년간 최원식은 이곳 홀리 이노센츠 성공회 한인회중을 섬겼다. 이후 본 성공회 한인회중은 거주 사제가 없이 한국어 모르는 부인 평신도 지도자의 목회가 계속되다가 한인 노동자의 잦은 이동으로 정규적 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1925년에 한인회중 목회는 중단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1930년 인구조사. 최원실로 적혀있다. wd는 홀아버라는 뜻이다.

1911년경 최원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다. 40세 된 1920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자로 활동했다. 그는 70세의 어머니 순이와, 4살 아래 36세의 부인 에바 최로부터 낳은 18세의 아들 요셉, 9세의 아들 피터, 7세의 딸 아다 그리고 6세의 프랭크 등 총 5명과 자신을 포함해 6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1930년 인구조사에 그의 이름은 최원실이다. 최원식의 오자로 보인다. 그의 부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가 홀아버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30년 이전에 그의 부인이 소천했다고 보된다.

damien,sohn@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청교도 신앙 (27) 청교도들의 예배 (1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없다.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에게 공예배는 무능과 무의미 뿐이다.

아)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체면 때문이거나 그저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또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 하기 때문이거나 부모님이나 친구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의 얼굴을 보며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양심의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영혼의 변화와 심령의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가? 받은 은혜를 더 간직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일이나 경건 서적을 읽는 일 등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1:6)라고 증거한다.

마) 성도라면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깨우치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제하심을 우선하는 마음,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보신다. 성도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시27:4)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나) 또한 공예배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탓에 예배당을 떠날 때 자신의 영혼이 매우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예배를 저급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즐거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발로 짓밟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없다.

예배의 내용을 경시하는 자들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보고 그 비참한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몰살당한 것(삼상 5:17-22), 웃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것(대

##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지 점검 영적진보 위해 기도, 묵상, 경건서적 읽기 등에 시간 할애 해야

하26:16-21), 옷사가 죽게 된 것(삼하 6:6,7),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삼하6:20-23)은 구약에서 예배를 경시한 자의 말로라고 할 수 있다.

다) 공예배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목사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자세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설교하실 때 왜 그분의 공적 사역이 별로 큰 은혜를 미치지 못했는지(마 13:54-58) 것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개인과 함께하시지 않는 충분한 이유이다.

라) 공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별 준비 없이 부주의한 자세로 나올 수 있다. 주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영광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찌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찌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꼬”(시42:1,2)라고 고백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 63:1, 2)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시84:2)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는 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하여 속히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양하게 만드신다. 이와 같은 갈망함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 성도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악하고 부주의하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공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 개인의 게으름을 탓해야 한다.

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히11:6)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공예

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만일 성도가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성도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 속에 떨어질 때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은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태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원인들이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즐거워할 준비를 해야 하며 합당한 마음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예배에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공적 예배보다 선호하는 것은 공적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하는 죄이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죄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개인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가장 명백하고 안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영광과 생명의 환상들인 하나님의 현현을 천하게 여기는 죄이다.

공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성소에 두신 판단의 보좌를 깔보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더 선호하는 것은 공적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 본/사/방/문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

### ‘6가지로 보는 성경연구방법’ 강의 성경의 의도와 목적 정확히 전달



본사를 방문한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목사 부부

국제강해설교연구원 원장 박형철 목사(한우리교회 담임)가 1일 오전 본사를 방문했다.

박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LA 지역 교계단체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LA를 방문했으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일부 신학교와 교회에서 강의하고 한 국으로 돌아갔다.

본지를 방문한 박형철 목사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변영신학의 감염”이라고 입을 열어 “진정한 종교개혁은 신학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곧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적 시스템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신학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도자 개혁을 위해 한 사람, 한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중심, 성경중심으로 돌아가야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강해설교연구원은 “목회자들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관

점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자신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제 강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보는 성경연구방법’으로 목회자가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과 성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본인이 우선 감동을 받고, 또 큰 감동을 주며 전할 수 있도록 공식화(설교 tool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설교자나 성도가 함께 감동과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를 통해 누구나 고민하는 ‘설교’의 문제를 간결하고 쉽게 이해하고 해결했다는 평을 얻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무산된 세미나는 오는 9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한국 010-5587-9155 또는 logos2u@daum.net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면에서 계속》

심리학자인 토리 히긴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 양육 환경은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인생은 도전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보상받는다”는 성취 지향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은 아이와 세상은 무서운 곳,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안정 지향적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히긴스 교수는 “미국인의 경우 65% 정도가 성취지향형이고, 한국·중국은 65% 정도가 안정지향형”이라며 “이는 각 사회가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보기술(IT) 발달은 이민자의 성공 공식을 더욱 간결하게 만들고 있

다. 첫째,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간다. 둘째, 미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기회(장래 배우자 포함)를 사랑하게 되고, 졸업 후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에서 받은 교육을 활용해 창업가정신을 발휘한다.

이민자정책연구소(Migrant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이민자 중 30%가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출생 성인인 구에서 볼 수 있는 수치와 거의 맞먹는 다.

포브스는 “이민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현대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이공계를 전공한다”며 “2011년 특허출원 기준 미국 상위 10개 대학에서 창출한 특허 중 4분의 3가량은 이민자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전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jehs.com</p>	<p><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주, 주년, 종교단체: (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7: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시애틀평장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kpccseattle.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p>	<p><b>앵커리지벨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p>	<p><b>엘파소열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15)42-0288, Fax: (915)521-937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42-0288, Fax: (215)521-937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킬린노드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nmc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온전한 십일조



여승훈 목사

오래전 필자가 사역하던 교회에 최경주 선수가 약 3년간 교인으로 출석하였던 적이 있다. 시즌 경기가 모두 끝나는 12월이 되면 교회 남선교회에서 최경주 골프 감습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골프를 전혀 쳐 보지 않아서 골프 전문 용어를 잘 모른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용어가 있다. "그립 잡는 법"이다. 최경주 선수가 가장 강조하던 용어였다. 그립 잡는 법은 골프의 기초이면서 PGA 챔피언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자가 그 장로님에게 나누었던 내용을 나누어 보겠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십일조에 대한 책망은 표면적으로는 수입의 십일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인 것 같지만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책망이다. 수입의 십일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더욱 큰 도둑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신앙에서 파생되어 나온 열매가 온전한 수입의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수입의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관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한다.

시는 것은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관계를 요구 하신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로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복"에 대한 해석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므로 공급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리킨다. 10절에서 말하는 "양식"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해야 한다. 시험해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물질적 축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해보라는 그런 취지라면 해석을 하면 온전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사랑하므로 온전한 수입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므로 수입의 십일조를 드릴 때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채워진 자기 자신과 함께 그 표정으로 수입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찬 성도들로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은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테스트 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아니 그런지 시험해보라는 의미는 충분한 해석이 될 수가 없다. 그런 해석들이 지난날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을 낳게 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어 오지 않았는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사랑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 예배문 작성국 필리핀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차별 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동양성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예배문 작성국은 필리핀으로, 이날 예배는 필리핀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에서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합창단(지휘 이종현 집사), LA여성 선교합창단(지휘 최왕성 집사)가 특별출연해 특송 및 특별연주를 선사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기도일은 매년 3월 첫째 주 한 날 한 시에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세계평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문 작성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된

다. 2018년 세계기도일 예배문은 수리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결정됐다. 한편 2017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공동의회는 오는 9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된다. ▲참가문의: (714)398-7471 최순자 회장 <박준호 기자>



OC교협, 목사회, 장로협의회, 원로목사회, 민주평통 OC,SD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도회에서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 마디 기도 속에 구국 역사 일어나”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도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회장 임재선 장로), 오렌지카운티 원로목사회(회장 계한교 목사), 민주평통 OC/SD협의회(회장 권석대)가 공동주최한 3.1절 기념식 및 평화통일 구국기도회가 3월1일 오전 10시30분은 해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권상욱 목사 찬양인도와 이호우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3.1절 기념예배는 조현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대표기도, 노상철 목사(OC교협총무)가 성경봉독, 살롬여성합창단이 특송했다.

을 맞이했다.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구국일념의 기도와 3.1절 많은 순직당한 애국열사, 그리고 현재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과 태극기 드는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피 목사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이념을 갖고 있던 간에 기도해야 한다.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돼 지배받게 된 후 10년이 되던 해 1월 고종황제가 승하했다. 이에 온 국민들이 만세독립운동의 깃발 뜨게 됐다. 2월 일본의 한국유학생이 독립선언서 낭독한 것이 발단이 돼 3월에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다. 오늘날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지만 애국애족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적 제단을 쌓게 된다면 하나님

손길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것이다. 이념차이보다 기도 한마디 속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구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계한교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국민의례는 잔노 OC/S/D평통 간사의 사회로 시작, 미국국가와 애국가, 그리고 3.1절 노래를 다함께 불렀다. 그리고 권석대 평통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며 김익현 목사, 김기동 목사(OC교협이사장),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영감 전 가주하원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러시아총장단이 축가를 불렀다. 3부 순서로 진행된 구국기도회는 신현철 목사(OC교협 기획부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기도회는 박재만 목사(OC교협 행정담당 부회장)이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김근수 목사(OC목사회 부회장)이 '조국의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영적회복을 위해', 이선자 목사(OC교협 여성분과장)이 '탈북민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박용일 목사(OC교협 신학담당 부회장)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한인동포들을 위해', 남상국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가 '차세대의 신앙회복과 계승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부흥'을 다함께 부른 뒤 윤덕근 목사(OD/SD민주평통 종교분과 위원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2017년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회장 김희창 목사, 부회장 주신 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총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총회(회장 안중기 목사)가 6일 오전 10시30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분회 부회장 김희창 목사(LA지방회/말씀세로교회)

가 회장에, 부회장은 주신 목사(LA 동지방회/미주새한교회), 그리고 총무 신용석 목사(남서부지방회/로고스라이프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이날 회칙개정이 이뤄졌는데 매월 둘째 월요일에 가졌던 본

회 모임을 첫 주 화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여름가족 수련회와 특별, 월별행사 기획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 전에 김희창 부회장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안신기 목사(LA동지방회/한사랑교회)가 기도했으며 최재성 목사(LA지방회장/남가주은혜로교회)가 성경봉독했고,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연합성교회)가 '사랑의 십자가'(롬5:6-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합심기도시간에는 '한국의 안보와 복음화', '교단 교회 교역자 가족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마무리 기도는 김성식 목사(남서부지방회 부회장/토렌스우리교회)가 했다. 이날 예배는 송중복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한빛선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총회 참석 총대 선출, 세미나 등 CRC 봄노회...코암노회, 한미노회

북미주개혁교회(CRC) 코암노회와 한미노회 봄노회가 각각 개최됐다. 지난달 28일과 3월 6일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와 라스베가스스필그림교회(담임 남택중 목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달 28일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에서 열린 코암노회(의장 윤원환 목사)는 노회 가입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이 보고됐으며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트리니티크리스

천칼리지(Trinity Christian College)에서 열리는 교단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추천 건에 대해 서기 임지석 목사가 설명했다. 또한 이날 김정우 목사(우림교회 담임)의 노회가입에 대한 인터뷰가 열려 노회가입이 허락됐다. 또 코암노회 설립을 비롯 노회 초창기 때 수고한 최승창 목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윤종대 목사가 축복기도 했다. 지난 6일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담임 남택중 목사)에서 열린 한

미노회(의장 정장수 목사)는 경건회로 시작, 남택중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6월 총회에 참석할 총대 선출을 했는데 정득근 목사(샌디에고 우리교회)와 권대산 목사(울림평장로교회)가 총대로 추대됐으며 추천된 총대 중 불참자 발생 시 전정하 목사(행복한교회)가 총대로 참석하기로 결정됐다. 또 세계선교부와 한인사역부 사역보고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김동일 목사(생명찬교회)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요한계시록 4시간에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설명회 3월 25일 오전 9시30분 선한청지기교회에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위탁가정 부모가 되기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오는 3월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LA동부 지역에서 한국어 설명회를 갖는다.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선한청지기교회(담임 목사 송병주)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

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이미 위탁가정 자격을 갖춰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인부와 과거 위탁가정에서 성장해 현재는 성인이 된 여성이 직접 참석한다.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인부부는 위탁가정 시스템을 통해 돌보던 아이를 입양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인 아이가 위탁자녀로 부부가

정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부부는 위탁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자신들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재인 동지찾기 프로그램 매니저는 '위탁가정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준 선한청지기교회의 제안으로 LA동부지역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위탁가정에 관심이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 LA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아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32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인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 2년 여간 12명의 아이들이 입양됐다. 좌석이 한정돼 있으므로 참석을 원하면 예약해야 한다. ▲예약문의: 이재인 매니저 (213)235-4868, jalee@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북미주개혁교회(CRC) 봄노회가 열렸다. 사진은 청운교회에서 열린 코암노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기사판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제 42차 정기총회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FGWM, 총회장 양승호 목사) 제 42차 정기총회가 3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뉴욕순복음연합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퀸즈장로교회 성인대학 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성인대학 봄학기가 14일(화) 오전 10시30분 개강한다.

전임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가 장년목회 담당 전임사역자(Full Time)를 청빙한다.

후러싱제일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 연속 세미나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 연속 세미나를 갖는다.

뉴욕수정교회 임직식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순 목사)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이 3월 12일(주) 저녁 5시 열린다.

뿌리깊은나무교회 교회 이전
뉴저지 포트리에 있었던 뿌리깊은나무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3월 첫 주일부터 레오니아에 있는 패밀리터치(240 Grand Ave)로 예배 및 모임장소를 이전했다.

이노비, NYU병원 장애인 플라워힐링클래스 시작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NYU 병원 IWD(Initiative of Women in Disabilities)의 여성 장애인을 위한 무료 플라워 힐링 클래스를 시작한다.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한 기쁨과영광교회 교우들과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 복음화대회 강사 양명환 목사

교협 2차 실행위... 6월 15-18일, 안디옥교회서



양명환 목사
제 37회 필라델피아연합교회(회장 김영천 목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서울회관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1부 경건 예배는 박도성 사관(부회장) 인도로 손석현 목사(부서기) 기도, 김병일 목사(서기)가 성경봉독했으며, 안문균 목사(직전회장)가 고린도전서 10장 31-33절을 본문으로 "이런 중들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문균 목사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김영천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6일(주)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5개 지역에서 개최(장소, 강사 등은 추후 발표). △복음화 대회: 6월 15-18일, 장소는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강사는 양명환 목사(원성감리교회 담임) 실행위원: 강승호, 고택원, 김정일, 김창만.

뉴욕나눔의집 노숙인 3명 고국행
재외한인구조단과 MOU체결 후 첫 열매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노숙인 3명이 한국으로 귀환한다. 2명은 3월 6일 출발했고, 1명은 4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오전 11시 뉴욕나눔의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성원 목사는 "지난 2월 9일 한국 재외한인구조단(대표 권태일 목사)과의 MOU를 체결한 후 첫 고국행"이라며 2분은 신장투석과 스트로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한국에 가면 치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 분은 강화도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게 돼 재활의 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한인구조단은 귀향자들의 티켓부터 한국에 도착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료보험 등 서류관계와 숙소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다.

박 목사는 "뉴욕에서 불법체류로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나이도 60을 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직업을 찾는 것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1996년 도미한 송씨는 6년 전 만성신부전증에 걸려 노숙자가 됐으며 2014년 8월말 나눔의집에 왔다.

91년 도미한 최씨는 가족이 함께 이민 왔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됐다. 5년전 나눔의집에 1년 정도 있었으나 나갔다가 최근 다시 들어왔다.

1999년 IMF로 사업에 실패하고 도미한 이씨는 유명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지만 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 투석 중이며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기도 했다.

박성원 목사는 "해외한인구조단을 통해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 3분외에는 없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보니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맨왼쪽)와 한국으로 귀환하는 노숙인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쁨과영광교회-글로벌뉴욕여목연
뉴욕나눔의집 방문 예배, 친교 가져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 교우들과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 임원들이 3월 2일 사순절 두 번째 날에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예배와 친교를 통해

작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신명기 33장 29절 이말 예배에서 신명기 33장 29절 임원들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전희수 목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물

질이 많은 사람에게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란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 기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둘째,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사람 셋째, 적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김치수, 김풍은, 김성철, 박동배, 박성일, 박태문, 이대우, 안문균, 정희권, 조진모, 차명훈, 천조용, 최해근, 최형관, 호성기, 황준석(이상목사 20명), 장로회 회장 외 3명, △이단대책위원: 위원장 이대우, 총무 안문균, 위원 강학구, 김창만, 김풍은, 김병일, 박도성, 조병우, 조진모, 호성기(이상 목사) △회원교회 근황: 누락된 회원교회-살뜰한인장로교회, 세전교회, 공석-필라델피아교회, 필라한인장로교회, 한인필라델피아교회 장성식 목사 시무 인준. (기사제공: 필라교협)

미드웨스트대학교 항공학과 신설 인준
한국, 중국 항공사와 협력 MOU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스승 박사)가 2월 8일자로 항공학과 신설 인준허가를 받아 한국, 중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항공 조종사와 관련 분야에 도전할 인재를 모집한다.



신설된 항공학과 입학한 학생은 항공이론과 실기를 교육을 받고 미국항공우주국(FAA)이 발행하는 항공기 조종사 면장, 헬기 조종사 면장, 운항관리사, 승무원 등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미국항공우주국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해 받는 FAA 면장은 국제선 항공기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다.

동 대학교는 베테라 조종사 출신 교수진, 실습용 비행기 헬기 등 20여대, 활주로, 등을 확보 했으며 한국의 중요 항공사와 협력 MOU, 중국의 항공사와도 협력하게 됐다.

수업기간은 2-4년 과정이며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인정받아 남은 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2-4년 과정 중 조종사 면장실기를 동시에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학점 취득 방법에서 이론과목은 온라인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받고 전공과목과 조종실기를 위해 1-2년은 동 대학교에서 비행실습을 하고 미국 조종사 면허시험(FAA)에 응시해 면허증을 취득하며 취득 후 미국 항공사에서 인턴십 가능하다.

설립 31주년을 맞는 동 대학교는 미 연방정부 비영리대학교 재단법인 허가를 받고 미 연방정부 교육부와 대학인준기관인 CHEA 인준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동양인 이민자가 설립한 종합대학교 중 최초로 미 연방정부 교육부 인준을 받은 대학교다.

배출된 문헌들은 대학총장, 교수, CEO, 고위직 공무원, 군 고위직, 목사, 선교사, 중고등학교 교장 등 전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 교는 SEVIS I-20, F-1 Visa 혹은 J-1 Visa를 발행하며 집중영 어교육(항공전문영어) 및 비행 조종 실습을 할 수 있다.

연구원으로 초빙이 가능한 분야는 주 의회, 주정부, 시정, 카운티, 중요 기업체, 자동차, 항공분야, 비즈니스, 호텔 등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www.midwest.edu를 방문하거나 전화 (636)327-464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한 기쁨과영광교회 교우들과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주제

## 제4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연다

제4회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가 오는 17일(금) 저녁 11시부터 다음날인 18일(토) 새벽 4시까지 은혜한교회 내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주최,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게이트웨이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웨퍼드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등 남가주 주요 신학교 학생들과 미스바워십, CMF, JAMA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대 합주

를 펼치는 연합집회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요20:22)로 이 땅에 다시금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관계자들과 남가주 주요 신학교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 풀러튼 소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라이브러리에서 설명회 겸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번 미스바연합기도회의 특징은 지난 1-3회와는 달리 철야집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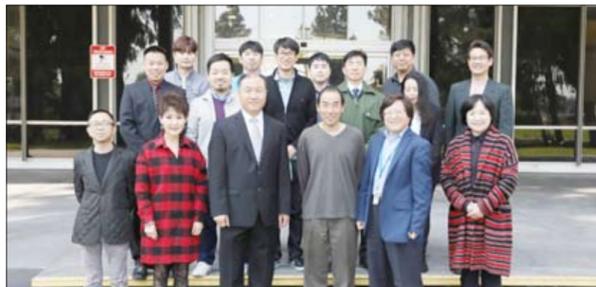
갖게 된다.

주최 측은 “철야집회로 갖게 된 것은 토요일 낮 시간이 주는 장애요소가 많아서”라 밝히고 “남가주의 영적부흥을 위해 철야기도회를 하던 분들이 참석의 어려움, 그리고 대부분 사역자들이라 토요일 낮 시간 기도회를 위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원래 취지대로

시간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온전한 철야예배로 진행될 것”이라며 “각 신학교 및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합심기도회를 인도한다”고 밝혔다.

기도제목은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을 위해’, ‘남가주를 위해’, ‘한국을 위해’, ‘북한을 위해’, ‘교회와 영적 리더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청년을 위해’, ‘신학생을 위해’, ‘그룹기도’, ‘환우와 헌신을 위해’ 등 총 12가지다.

▲문의: (714)315-4617 (박준호 기자)



제4회 남가주 미스바 연합기도회 준비모임을 마치고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합창으로 헨델의 메시아중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

##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가 세계야가페 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5일 저녁 7시 열렸다.

김숙영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소프라노 에이미 로렌스, 외대교과(지휘 오위영 목사), 바리톤 장상근, 소프라노 사라정, 목사장로부부합창단(지휘 이재경 목사), 조이풀중창단(지휘 서문욱), 테너 오위영 목사, 에버그린합창단(지휘 노혜숙), 메조소프라노 사라

비티가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지영 목사(글로벌미주부흥사협의회 회장) 인도로 시작, 피종진 목사(세계목음화협회의 대표총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시 104:31-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17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에서 훈련생들이 선교사 임명을 위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총 9명 선교사 임명...지역, 사역분야 다양 미주OMTC 제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회(GMS) 미주 OMTC 제4기 수료식 및 선교사 임명식이 2일 컴미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병구 선교사(미주OMTC 훈련원장) 사회로 시작된 수료식 및 임명식은 사회자가 미주 OMTC 학사 보고를 했으며 박무용 목사(미주OMTC 이사장)가 수료증 수여 및 서약을 했다.

이어 안수기도, 악수례, 임명장 수여로 이어졌으며 박기호 선교사(풀러튼신학교 교수)와 김영록 선교사(GMS미주지부장), 그리고 고귀남 목사(LA연약교회)가 축사와 격려사를 했으며 박무용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수료식 및 임명식 전에 열린 예배는 이상돈 목사(미주OMTC

이사) 사회로 시작, 민찬기 목사(미주OMTC 이사)가 기도했으며 김명환 선교사가 성경봉독했고 박무용 목사가 “복음을 위하여”(롬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GMS 미주OMTC 4기 수료 및 임명장 수여자 명단이다.

△김두갑(아프리카 의료팀사역) △안영옥(미주 음악사역) △이부원(알바니아난민, 집시사역) △이인미(미주 스포츠, 북한 사역) △오충성(미주 하늘기쁨의교회, 다문화선교적 교회개혁) △조동찬(캄보디아 장애인사역) △최명관(인도 음악사역) △하덕신(교회개혁, 어린이사역).

(박준호 기자)

## “한인들의 힘이 되는 총영사관 되겠다” 주 LA 총영사관, 기독교 언론대표와 간담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6일 오후 5시 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기독교언론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기철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일하면서 그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종교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했고 한국도 기독교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에 대해 한국이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기에 기독교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하며 “총영사관의 4대 목표인 △분류 낮은 총영사관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총영사관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총영사관

△동포사회와 함께 가는 총영사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서 아닌 모두가 협력할 때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독교언론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년 중점 추진 과제는 △반 이민 행정 명령 관련 서류미비 우리 국민 보호 △윤전면허 상온인정 협정 △한국 알리기 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추방대상자는 △중범죄자 △추방명령을 받았던 자 △음주운전에 걸렸던 자 △범죄인인 것과 있었을

# 서부교계 게시판

## 제5회 미주 청소년 효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5회 미주 청소년 효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초등부(1학년-5학년) △중고등부(6학년-8학년) △고등부(9학년-12학년) △장애우 청소년(학년과 나이 제한 없는 청소년) 등 4개 부문으로 시행되며 주제는 글짓기, 그림 모두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What I Want to Share with my Parents!’(효 글짓기는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함)이며 4월 8일(토)까지 효사랑선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효사랑 선교회 주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이며 E-Mail은 hyosarangus@gmail.com, 이메일 접수는 글짓기에 한하며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한다. 시상식은 4월 22일(토) 오전 10시 풀러튼 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670-8004 Cell.(562)833-5520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은퇴식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을 12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23)227-1400

## 남가주사랑의교회 복음과 삶 집회 및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복음과 삶 집회를 17일(금)부터 19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하형목 목사(탐사스 건축회사 회장, 미국 건축과학분야 자문위원)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7시 30분, 18일(토) 오후 7시 19일(주) 1, 2, 3부 예배다. 그리고 세미나는 18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이며 영어권 대상으로 갖는다.

▲문의: (714)772-7777

## 연목회 회장 이취임예배

남가주 연세대학교 동문목회자회(연목회) 회장 이취임예배가 13일(월) 오전 11시30분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 828-5780

##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연합회 찬양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12일(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931-9133



이기철 총영사가 네덜란드 교과서가 수정돼 출판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우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불신 검문이나 길거리에서의 검문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예비지식이 필요할 때는 우리 NGO(661-607-7861)로 연락해 교회나 모임에서 세미나를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체포됐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영사관(213-247-5566)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E-Mail: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일요일(월-금): 오전 5:30 화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트림)예배: 오후 12:30 EM, 대학부: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성인영양예배: 오후 9:15, 11:30 임의회: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ibel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철야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전 7:3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동성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t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559-7728 (전환: 박경희),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영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배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의회: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ibel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Saver: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령침례: 365일 24시간 온로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움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한민)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저녁 5:00(월-토) 성령침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ervy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aco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진촌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3:00(한민)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대한민국 희망은 오직 예수뿐”

## 한기총·한교연 공동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한국교회 성도 등 5만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대부분 손에 태극기를 들었으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광장까지 대로를 가득 메웠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희망의 메시지’ 순서에서 “지금 많은 거짓이 세상을 현혹하고 있다. 진리는 예수뿐”이라며 “예수를 전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산세력·거짓·불의·흑암의 권세는 떠나라”면서 하나님께 교회·정치·나라·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지

금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서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순절 첫날인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상달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중앙회장은 “국론이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혼돈을 잠재우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달라”고 대표기도 했다.

또 엄신형 전 한기총 대표회장, 김요셉 초대 한교연 대표회장, 고시영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이태희 이강평 한기총 명예회장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도회 참석자들이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회 직후 교회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소수였다.

노영두(55·서울 신정동)씨는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순수한 기도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장 전명구)는 하루 앞선 28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한 3·1만세운동 9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감리회 성도 100여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 전도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전명구 감독교장은 ‘다윗의 승리 노래’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음을 기억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에민하게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지닌 지도자가 돼 달라”고 부탁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민족의 미래를 제시하는 화해자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한교총은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 한국교회의 95%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체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기록적인 국난을 겪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으로 비상시국을 맞았다”면서 “이번 기도회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통회자복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7일 기도회에선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8일에는 윤석진(연세중앙교회) 윤보환(시흥 영광감리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 “현란이 변해 축복되게...신앙으로 희망 제시”

### 한국교회 대각성기도회 개최

2017한국교회대각성준비위원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17 한국교회 대각성기도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회가 하나 돼 민족에 희망을 제시하자고 다짐했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심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며 영적 지도력을 잃었다”면서 “분열을 넘어 하나 되기 위해선 권력지향 탐욕 등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제일주의의 신앙과 부활신앙,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 영적 혁명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이라면서 “그때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

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탄핵정국 이후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면서 “현란이 변해 축복이 되도록 심자가 부활 사랑 믿음의 신앙으로 민족에 희망을 제시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데니스 할린저 미국 고든콘웰신학대 총장도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이끌고 민족 희망·동불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할린저 총장은 “사회든 교회든 인격적이고 헌신적이며 준비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자기 자신이 집중하면 안 된다. 시대는 진실한 지도자, 윤리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는 삶 속에서 비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성령의 역사에

## 한장총, 대선 후보자들 정책 검증·제안키로

### 28일 광주분향교회서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등 7대 사업 추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채영남 목사)가 교계와 연대해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기독교 관련 안을 제안한다.

한장총은 지난 달 28일 광주 분향교회에서 열린 제2차 임원회의(상임위원회 연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장총이 추진 중인 7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이슬람 확산 대책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2011년 ‘장로교의 날’에 제

시한 한국장로교 ‘한(1)교단 다체제’ 연합총회를 계속 추진키로 했으며 회원교단 총회에 연합총회 수용 결의를 요청키로 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비전으로 분향교회의 사역과 성장을 이루었다”며 한국교회의 연합사업도 이런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과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실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장총이 추진 중인 7대 사업은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사회복지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장로교인 선정 및 발간 사업, 종교개혁500주년 국제대회 참가, 제9회 ‘장로교의 날’ 및 제6회 ‘장로교 신학대학교찬양제’ 등이다.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는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의가 이어졌다.

한장총 임원들은 광주 선교사 묘역과 5·18 묘지를 방문했다.

한장총 부회장 오치용 목사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우리나라 민족화를 위해 송고한 희성이 있었다는 것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할 때라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중, 동북3성 선교사 이달 중 추가 강제출국설

### 1월 엔지 32명 추방이여 사드 보복에 선교도 속수무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국선교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정부의 선교사 추방조치를 피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한 장로교단 소속으로 중국선교 사회 임원을 맡고 있는 선교사 A씨는 추방을 피해 일시 귀국을 선택했다. 이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소나기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귀국하라’고 당부한 뒤 급히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중국선교사들 사이에선 이르면 이달 중에 동북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 있는 선교사들이 추가 추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국은 지난 1월 엔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32명을 추방했다.

A선교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부감이 매우 크고 한국인을 향한 비난여론도 상당하다”면서 “선교사들에게 추방조치가 사역에 치명적인 만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추방을 당하면 중국의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입국이 불허된다. 후원교회들도 사역지가 없어진 선교사에 대한 후원을 꺼리곤 한다. 추방당한 선교사들 중 일부는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제3국으로 재파송받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선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중국에서 24년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 B씨는 지난 1월 추방됐다. B 선교사는 “이번 추방은 과거와 분명 달랐다. 강경했고 이례적으로 부부를 동시에 추방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B씨는 “공안에 연행돼 가보니 내 파송장을 보여줘 매우 놀랐다”면서 “중국정부가 선교사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당장 나가라는 게 요지였다”고 했다. 그는 “추방된 선교사들은 한국에 마땅한 거처가 없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는 게 보통인데 자녀들이 어릴 경우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C선교사의 경우 결국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재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이제 와서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상하이에서 사역하는 D선교사는 “이미 추방당한 선배들을 통해 추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몹은 선교지에 있어도 늘 추방의 공포 속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방의 이유가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신종론도 있다. 1월에 추방된 선교사 E씨는 “사드 배치가 선교사를 추방한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선교사가 추방됐다고 부각하면 복잡하게 꼬인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사무총장 조용중 목사)는 최근 회원단체들에 중국 사역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대외비로 발송돼서 이 공문에서 KWMA는 중국 전역에서 선교사들도 갖지 말고 국내 교회와 단체들도 단기선교팀 파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국민들은 기독교(개신교)에 대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도덕·윤리성 회복이 교회의 신뢰를 되찾는 급선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를 동안 전국 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과 2009년, 2010년, 2013년에 이은 다섯 번째다.

신뢰도는 ‘답보’, 불신도는 절반 넘어	작한 9년 전과 비교할 때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5점 척도 기준 2.55)였다. 직전인 2013년 조사 때의 19.4%(2.62)와 비교할 때 통	나눔·섬김·성장가능성은 ‘최고’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 응답자의

## 한국교회 신뢰 국민 ‘5명 중 1명’ ...도덕·윤리성 회복 급선무

### 기윤실, 성인 1000명 대상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설문조사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세부 속성별로는 교회 활동(2.87)과 기독교인(2.56), 목사(2.54)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2%였다. 총 5차례 조사 가운데 이 비율이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을 분석한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관련 조사를 처음 시

36.2%는 기독교를 꼽았다. 가톨릭은 34.8%, 불교는 7.8%였다.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40.3%)이 기독교를 꼽았다. 이어 가톨릭(20.3%)과 불교(12.1%), 이슬람교(4.6%) 등의 순이었다.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독교가 봉사는 잘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답변은 기독교를 성장 위주의 종교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리·도덕 실천 없인 신뢰회복 없어”

국민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26.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뢰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는 목회자에 대해 ‘윤리·도덕성’(49.4%), 기독교인에게는 ‘정직하지 못함’(2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위해 큰 역할 할 때”

### 49회 국가조찬기도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참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로 작부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기도회에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반목과 질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의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기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국정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을 믿는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설교에서 “우리 모두 ‘국가적 위기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백성을 축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기총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 최근 임원회에서 정관 개정 추진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3일 임원회를 열어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출 문제로 여러 차례 파행을 겪다 회원 교단의 탈퇴와 분열까지 겪었다. 이번 정관개정은 한기총을 분열 전으로 복원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 관계자는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 정관 개정 건을 다뤄야 상임회장 가운데 3인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1인의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다.

상임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 군소교단 대표 등 8명 이내로 선임한다. 예장합동

과 대신, 기감, 기성 등 현재 회원교단이 아닌 곳도 포함시킨 곳은 이들의 복귀나 가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중 대표회장 후보는 각 교단의 규모를 감안해 가군(7000교회 초과 교단)에서 2인, 나군(7000교회 이하 1000교회 초과 교단)과 다군(1000교회 이하 모든 교단)에서 1인으로 정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대표회장 추천위원회가 선임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한기총은 또 선임 사무총장으로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인 배진구 목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한기총의 개혁과 탈퇴교단의 복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회장은 그동안 한기총 복원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국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도 “한기총

## CTS, 동성애 대책 토크 프로그램 신설

### ‘동성애STOP-톡톡포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20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고계 방송 최초로 동성애 대책 토크 프로그램 ‘동성애 STOP - 토크포유’를 신설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20분 시청자를 찾아간다.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동성애 옹호 및 조장 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 이태희 목사(그안예진리교회 담임)가 진행을 맡고,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백상현 기자(출민일보)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출연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태파악은 물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CTS 감경철 회장은 “친동성애단체 등이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우며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공익 방송인 CTS가 대국민캠페인 ‘동성애 STOP!’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교계와 함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성애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 ‘동성애STOP-톡톡포유’를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프로그램으로 동성애

의 분열은 대표회장 선거 후유증 때문으로 대표회장 선거만 바로 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회장 제도는 선거 후유증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회도 자리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예장통합과 합동의 총회장, 기감 감독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맡는 3인 공동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이단 분열에 대한 엄청난 대응, 인적 쇄신, 정관 개정 등 한기총의 개혁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요 교단 2곳이 한기총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한기총에서 탈퇴한 큰 교단이 다시 가입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기점으로 한기총이 새로운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조질서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새로운 동성애 이슈를 다루게 될 ‘동성애STOP-톡톡포유’는 전문기 패널리들의 토크 형식으로 구성되며 동성애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등 법적문제와 동성애와 에이즈 간의 상관관계, 유전적 요인, 관리실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CTS는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캠페인 ‘동성애, STOP!’을 꾸준히 전개해 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TS특별대담(5부작)’, ‘CTS뉴스플러스-동성애 특별기획’,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작)’을 방송했다.

## 교도소 선교칼럼 (17)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 고통의 삶에서 핀 꽃

교도소 감방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 하는데 패리라는 한 젊은 여자 재소자가 자신의 엄마가 전에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와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개인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그녀의 엄마가 8년 전에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여 그녀와 같은 방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었다는 것과 그들을 상담해야 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패리의 엄마는 교도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살을 했으므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로 병원에 실려와 가족들을 볼 수 있었지만 딸을 볼 때마다 흘리는 눈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패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11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엄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패리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일 역시 패리 엄마가 자살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패리는 엄마가 자살한 후 아버지와 계속 부딪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자살한 전부인과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패리를 학대하곤 했습니다. 끝내는 12살밖에 안된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길에서 방황하는 노숙자가 되어 여러 해 겨울을 추운 밖에서 자야했으며 손과 발이 동상으로 부러져 있었습니 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더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그곳이 자신의 엄마가 자살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패리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가? 이번엔 패리가 감옥에 온 이유는 교통위반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엄한 미국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에 저로서는 그녀가 얼마나 교도소에 있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그녀가 출소한다 할지라도 노숙자로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 그녀를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패리와 같은 경우의 재소자들 들을 볼 때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었어도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냉대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겪은 길을 걸어 보지 않고서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함부로 그들을 판단해서 도 안된다는 것을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큰 실수나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패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녀를 볼 때면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외모로도 마치 영화배우 처럼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빛나 보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숙자로서의 아픔을 겪으며 살았지만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리도 한때는 자신의 삶을 탄탄하며 하나님께 본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과 이해심은 저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서는 아무 돌봄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패리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선교 편지

### 볼리비아

2017년 1월-2월 선교사역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사49:8).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볼리비아 영혼들을 사랑하며 볼리비아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사랑 감사합니다.

1. 경찰 선교회에서는 송년회를 맞이하여 3명(호세, 까띠부부, 다니엘라)에게 세례를 주고,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세는 현재 중위로 부인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저희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2. 베델교회에서는 2017년에 새로 일할 집사들과 교사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리디아부부, 사무엘, 날다 부부, 이반, 제니부부, 루시오, 월벨, 베아트리스, 셀리아, 마리아 엘레나 2명, 마리아, 로헬리오부부, 로사, 헤르만, 훌리아 부부, 안드레아, 후아나, 셀소, 솔레마 부 등의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교사들은 소외된 문맹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셀리아, 루시오, 가르멘, 이반, 월벨, 로사, 엘리사벳, 로사 리오, 자넷, 이트라).
3. 생명의빛교회는 현재 지붕이 없어 우기철인 지금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비에 젖을까바 노심초사하며 비가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어린이들이 공부할 때면 비가 멈추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며 공사는 시작하였습니다. 볼리비아가 다민족국가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1월 22일에 산초체 생명의빛교회 11명과 베델교회 16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와 성찬을 받았습니다.
4. 지난해 세무서에서 종교법인의 세금이 21,000Bs 가량 나와 황당하고 걱정이 되어 기도만 하였는데, 나라 정책으로 세금 감면 50%+20%가 확정되어 3,500Bs만 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 2월 11일에는 베델교회와 생명의빛교회 어린이들에게 새학기에 필요한 학용품(필통, 연필, 색연필, 종이, 풀, 가위...)들을 받으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은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6. 경찰선교회 창립회원인 아벨 대령이 라파즈 지방청장이 되었다가 장군 승진과 함께 경찰수장인 볼리비아 경찰청장(4스타)이 되어 2월 13일 경찰대학에서 축하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블랑코 대령도 장군(2스타)으로 승진되어 경찰선교회에서는 기쁨이 중만하였습니다. 후인의 후예로 볼리비아의 경찰청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

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 저 이견화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서 열린 세계경찰선교회에 참석하여 한국에 대해 너무 좋게 생각하기에 저 개인에게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에 갈 때에 당시 볼리비아 경찰청장인 아라세나 알바로 형제와 함께 가면서, 여태껏 아벨 형제가 경찰청장이 되기를 기도 했는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 김성제 선교사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지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아 특별 중보기도까지 부탁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 사역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기에 걱정하였고,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미루더니 드디어 2월 17일에 신분증을 받았습니 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산초체 생명의빛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땅의 서류와 경제적인 문제, 목수들).  
2) 수양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3) 고산에서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이견화 선교사의 감성선암이 치료되도록).  
4) 칸투파 라디오 방송국과 서류이전 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경찰선교회 아벨 형제가 경찰청장이 되었는데 볼리비아 경찰들을 잘 섬기며, 볼리비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보호하며, 안전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 고산에서 이견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이메일

## 선교뉴스

### 구호도 현금으로...케냐 빈민촌의 기본소득 실험

빈민들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무상 현금 지원이 가난한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달리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던 이들이 지원받은 돈으로 생산수단을 구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소개하며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사회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활동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케냐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들이 케냐 서부의 빈민촌 카코조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 현금을 쓰고 싶은 곳에 쓰도록 했는데 결과는 예상외였다. 기존에는 돈이 부족해 집 지붕의 구멍을 조잡하게 때우는 데 그쳤던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으로 양철지붕을 얹었다. 반년마다 시달렸던 초가지붕 수리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빗물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됐다. 마을 주민 에밀리 오티에노는 BBC에 “지붕을 고치는 데 쓸 돈을 학교 등록금을 내는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오티에노는 여분의 자금으로 식용유를 사서 되파는 소매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의 빈농이었던 조지프 움빈보 나 과거는 그의 아내 베아트리스와 함께 종자와 비료를 구매해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가족이 먹고도 수확량이 남아 내다팔 수 있게 됐다고 방송에 귀띔했다. 움빈보는 지원금으로 수소와 송아지를 각각 2마리씩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철제 기둥을 세워 집을 고쳤다. 그리고도 남은 돈으로 자녀의 등록금을 냈고, 30년 전 결혼식 당시 마련할 수 없어 미뤄 뒀던 신부 지참금을 처가에 건넸다.

영국 국제개발부가 케냐 북부와 북동부의 사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금 지급 결과도 카코조 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현지 주민 대부분이 척박한 환경에

서 어렵게 가족을 키워도 재산을 못받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와지르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압둘라히 아브디는 BBC에 “가까 100여 마리의 소를 키웠지만 최근 가뭄으로 대부분 말라죽어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현금 구호가 아니었다면 아이들 등록금과 생계비 충당을 위해 가족들을 또 내다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과 정부기관, 민간 구호단체들은 저개발국 빈곤 탈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빈곤의 대물림은 계속됐다. 이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집을 잃은 빈민에게 천막을 지어주던 구호활동은 최근 현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전 세계적 ‘기본소득’ 논의와 맞물려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자선단체도 점점 늘어났다.

현금 지급 방식 구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외개발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바스타글리도 BBC에 “현금 지급이 빈민 자녀들의 학교 출석률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빈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고 가계 지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7년 봄학기

#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http://www.buc.edu)

##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http://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mailto: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http://www.buc.edu)

###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BETHESDA UNIVERSITY |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shalom의 교육학(16)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 교육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로 서울에 가면 안되는 이유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이 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결과만능주의이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지 모든 과정이 미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선거가 출마한 공직자가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있다고 해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 준비과정에서 부정이 있다고 해도 시험성적만 좋으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결과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진리인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왔던가?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정당한 과정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결과에 따라 사람을 얼마나 비난, 폄하해왔는지 모른다.

둘째는 목적과 결과의 일관성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이후의 모든 행동과 방향이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중간에 바뀌어지고 왜곡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끝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목적과 평가가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바로 목적의 부재이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평가의 결여이다. 교육의 목적과 평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숙명적인 관계이다.

예전에 필자가 설기년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다. 갓 결혼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이제 자기의 아이들도 자기 반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그들도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니 햇수로도 약 20년을 넘게 교사로 봉사하게 되신 베테랑 선

생님이셨다. 그분이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이들이 주일 성경공부에 문제없이 참여하는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냈는가를 질문할 뿐 정작 아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질문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평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그렇다. 바쁘게 교육이 진행되면, 아이들을 정성없이 굴리면 교육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

에 함께 앉아 물어보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일 것이다.

정해진 교육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수하여 목표를 잘 도달했는지 알아보고 만약 잘 안되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교육내용을 재조정하거나 고칠 수 있게 되어 차후에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활동의 분주함이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환경과 조건에 적용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교육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에 의하여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요즘의 공교육에서 평가가 교사중심의 평가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평가는 결국 학습자가 자신의 강, 약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알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주도형 학습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 평가의 목적

교육 평가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assessment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단어인 assidere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옆에 앉아서 도와주는’(to sit beside)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평가라고 하면 매우 두렵고 떨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십상인데 원래 평가의 의도는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열

교육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잘 했으면 다음 과정에 진학하거나 좋은 결과(학점 등)를 받게 되는 것이 또한 교육평가의 목적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교육평가의 결과를 보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자기 발전과 동기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이러한 교육의 평가는 가르치는 과목의 마지막 부분, 즉 모든 내용의 기간이 끝난 후 치러지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분석이다. 따라서 예전의 평가는 이러한 교육과정 이후의 평가들이 주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분석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면 지금의 평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약을 파악하여 약점을 채워가는 전략과 방안을 수립,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판단,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평가를 행하는 과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학습의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다.

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습이 마친 후에 의도된 학습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된 평가이다. 주로 단원평가,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라는 이름으로 이 결과에 따라 학습자들은 등급이나 성적을 얻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분기별 혹은 매년 평가하여 이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학생들의 강, 약점을 분석 최종 기록해야만 한다.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계속 확인하고 평가의 과정으로 통상 진단평가(diagnostic assessment) 혹은 과정평가(formative assessment)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혹은 동료와 함께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의 강, 약점을 파악한 후 스스로의 학습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키는 일련의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자기평가

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가 중요하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학습들에게 정해진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달성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를 적게 한다. 통상 1-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만들어 1점은 전혀 달성되지 못했고 5점은 충분히 달성되었음의 기준으로 응답하게 한다.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과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그래서 3단계 교육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적용도 평가(application evaluation)라고 불렀다. 교육이 실시된 이후 통상 3-6개월 이후 설문서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배운 내용이 학습자의 현 상황의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학생들이 대상으로 기도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면 이후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부모, 친구, 관련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4단계라고 불리는 영향력 평가(impact evaluation)를 실시한다.

건,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은 모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엄중한 마지막 평가이셨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차 평가에서 실패했다라도 계속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과정 평가의 중요성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평가를 해서 비록 실패했다라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자. 교회에서 아이들이 평가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도 계속 기회를 주자. 그러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한 번의 평가 결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제일 나쁜 일이다. 평가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정보를 줄 뿐,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성장의 기회로 평가 자료를 이용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아이들의 영성발달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Barna(2003)는 교회에서 영성 목적을 심계명(출 20장), 산상수훈(마5-7장), 성령의 열매(갈 5장)에 기초하여 아이들의 영성의 목적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부모님을 존경하는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가, 항상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항상 주님께 헌신하는가, 가십을 피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늘 친절한가, 기도하는가, 자기 통제의 미덕을 실천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는가 등... 이러한 항목을 학생들이 적용하도록 하자. 자기 조건과 환경에 적합한 적용 계획을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평가의 중요성

Marzano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교사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 전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효과적인 교사와 비효과적인 교사가 학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차이는 38포인트(percentile point)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사의 어떤 자질, 스kill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 바로 평가의 기법과 활용이라는 면이다. 그만큼 교사의 평가와 관련된 지식, 스킬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평가에 대한 기법과 활용,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고 사용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능력이다.

hlee0414@gmail.com

### 결과만능주의 지양...주요 평가 목표는 교육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 평가과정 3가지: 단원평가/총괄평가, 진단평가/과정평가, 자기평가/동료평가

### 교육평가 4단계: 반응평가→학습평가→적용도 평가→영향력 평가

(self assessment) 혹은 동료평가(peer assessment)라 부른다.

평가를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1960년대 산업 및 기업 교육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큰 획을 그었던 Don Kirkpatrick의 이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교육 평가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단계는 반응평가(reaction evaluation)로 주어진 학습과정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과정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과정에 만족했는지, 주어진 자료나 강사,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한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반응 평가는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반응도 평가는 과정 이후 빨리 과정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특히 교회에서 학부모 세미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워크샵, 초청 강사 세션 등을 평가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반응평가는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교육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

배운 내용을 적용시킴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해당 조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평가 자료를 잘 분석하면 학습자 혹은 필요한 단위 조직의 모든 현상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수많은 자료가 흥수처럼 떠돌아다니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데 너무 만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데 있다.

### 최종 평가에서 합격하도록 잘 가르치자

성경에서도 평가의 엄중함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리 워런 목사님의 책, "Purpose driven life"에서는 인생이 곧 시험(life on earth is a test, p. 4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믿음, 순종, 사랑, 성실성, 충성을 계속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셨고, 야곱에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더 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셨다.

총괄 평가의 예도 많이 언급된다.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 On Campus Courses

###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

1) 평신도의 자원: 동원된 교회의 힘
평신도가 동역자가 된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가 많은 데 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훈련 받은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더 진지하고 재미있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된다.

에게 남자들을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시작을 제안하여 주중에 소그룹을 하나 시작하였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소그룹 성경공부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일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하게 되었다.

4) 새 등족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어 교회에 정착하게 한다.
큰 교회일수록 많은 성도들이 방문하며 등록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

1. 고난의 십자가 길이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다가 말을 듣지 않자 "너, 말 안 들으면 이민교회에 가서 일하도록 보낼 것이다"라고 했더니 한동안 말을 잘 들었다.

이민교회를 힘든 특수목회라고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일은 몇 배나 더 힘든 사역이요 가시밭길이며 눈물 없는 땀기는 길이다.
사모는 목사를 잘 내조하며 가족들을 돌보며 동시에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5)



이희숙 사모

도를 통해서 더욱 목회자의 고충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므로 교회적으로 큰 동력을 얻게 된다.

2) 기도와 사랑의 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한 후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기 때문에 주일에 결석한 성도를 잘 알 수 없다. 반면에 소그룹은 5-8명의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빠지면 곧바로 알 수 있어 서로 전화 연락을 하므로 교인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성도들의 삶의 변화
필자가 섬기던 라성세계복음교회에서 이 소그룹 성경공부가 크게 활성화 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모는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길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소문도 내지 않으시고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으시며 다 들어 주실 분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해 주신다.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교회 부흥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제 4부 사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및 실책

사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충과 어려움이 교회 크기와 교단, 그리고 위치한 지역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기독교 정신의학자이며 "왜 기독교인이 약해지는가"라는 책의 저자인 넬슨 박사는 "목회자의 아내란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가운데서 가장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목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계획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그 강의를 들은 후 수련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라도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롬8:18).

2.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다.
사모는 어느 특정한 성도와 편별된 사귀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모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상담할 대상자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

hslee39@sbcglobal.net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아브라함의 믿음(롬4:1-5)찬344장

사도는 믿음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구약의 계시로 돌아갑니다. 그 첫번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째, 그가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배운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그의 처음과 마지막이 언제나 믿음으로 일관한 것은 그의 구원이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 다윗의 믿음(롬4:6-7)찬206장

그 다음 사도는 다윗의 믿음의 구원을 통해 복음적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점이 믿음의 구원입니까? 첫째, 죄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었으나 간음과 살인교사를 행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를 알았습니다. 그가 구약에 살았으나 성령을 통해 벌써 구속 곧 죄사함을 경험하고 구속의 즐거움을 누리었습니다. 구약을 정통한 바울은 복음의 빛 안에서 다윗의 복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 믿음의 조상(롬4:8-13)찬539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유대주의적 지식에 쫓겨 박는 일입니다. 그 증거를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첫째, 무할례 때의 구원받은 사실이 실명합니다.

다. 둘째, 그는 칭의의 본이였습니다(9). 자기의로 구원받으려는 자리로 떨어진 유대주의는 복음을 떠난 것임을 바울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목 믿음과 은혜(롬4:14-16)찬378장

믿음의 구원이 은혜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밝힬니까? 첫째, 믿음에서 이탈하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14). 구약의 율법 속에 깔려있는 복음을 겸손히 받지 않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시 은혜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16). 도리어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 절망 중 소망을 생각함(롬4:17-24)찬197장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사도의 지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 자임을 믿었습니다(17). 모리아 제단에 목자를 바칠 때도 그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던 그는 저주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일방적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절망 중에 소망을 가졌습니다(18). 나아가 그는 약속이 성취될 증거가 점점 희미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토 아브라함의 확신(롬4:19-24)찬343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20).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우리로 그 위에 근거를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합니다. 셋째, 그 믿음은 실질적인 의의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확신에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엡3:19). 그때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인과 신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납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Daejeon, Roman Catholic, etc.

크리스천 위클리 주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1517년-2017년)

# 제4차 종교개혁발상지 유럽 5개국 학습여행

지난 3차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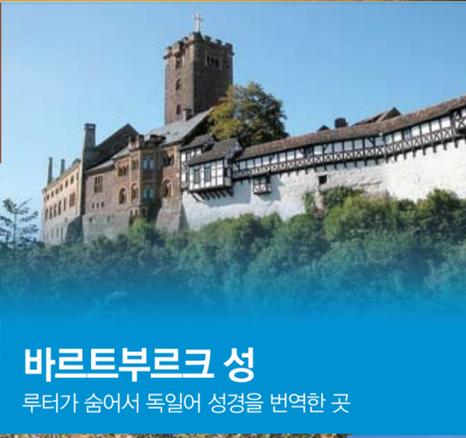
여행일정: 2017년 9월 11일(월)-23일(토) 총 12박 13일  
참가경비: 3,900달러

미주전역, 한국에서도 출발 가능합니다

모집정원: 40명(선착순)  
1차 등록마감: 2017년 3월 31일(금)  
등록 예약금: 1,0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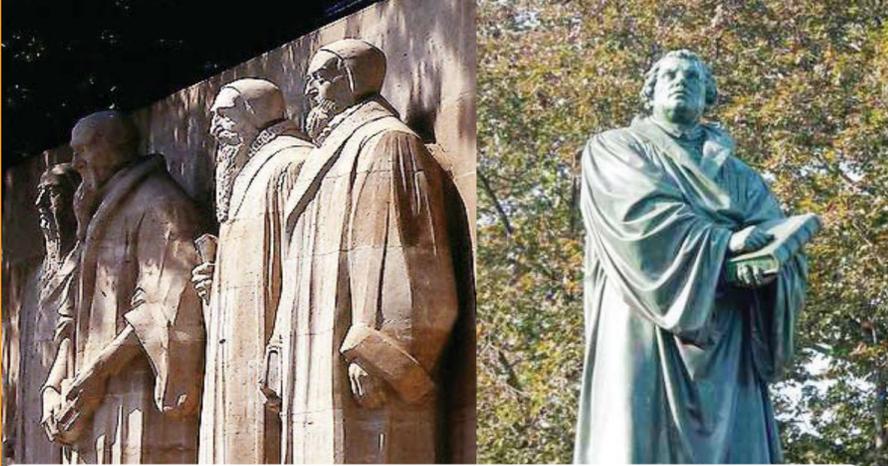
파리의 노트담 성당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가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곳



비텐베르크 성 교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서 (3차여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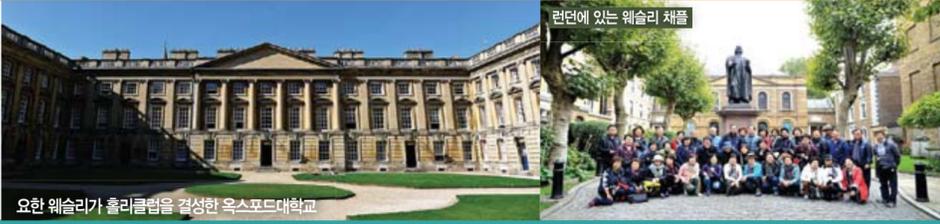


제네바의 레만 호수

알프스의 리기 마운트

종교개혁일은 개신교의 탄생기념일입니다. 2017년은 개신교가 탄생한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크리스천 위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4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을 실시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낸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요한 웨슬리, 쾰링글리, 존 낙스, 그리고 안 후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행적을 찾아나서는 이번 학습여행을 통해 개신교 탄생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는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반 여행자들이 찾지 않는 종교 개혁을 주제로 한 선택 여행 루트이기에 맞춤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정
1일 9.11(월)	LA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집결, 런던행 항공기 탑승
2일 9.12(화)	런던	전용버스		런던 도착 후 트라팔가, 런던 브리지 등 관광 후 석식, 호텔 휴식
3일 9.13(수)	런던	전용버스	08:00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울더스 게이트, 요한 웨슬레 생가, 교회, 변힐 필드, 옥스포드 대학 등 순례
4일 9.14(목)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8:00	버킹검궁(근위병 교대식), 대영 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빅벤 등 관광 후 유로스타 편으로 파리로 이동 후 호텔 휴식
5일 9.15(금)	파리	전용버스	08:00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상제리제, 콩코드 광장, 노트담 사당, 세느강 유람선(오후) 등 관광 후 호텔 휴식
6일 9.16(토)	파리 제네바	기차 전용버스		(칼빈의 종교개혁관 련 순례) 칼빈이 목회했던 St. Pierre교회, 목사관, 바젤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레만 호수 등 순례 후 호텔 휴식
7일 9.17(일)	제네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알프스, 리기마운트 등정후 취리히로 이동후 휴식
8일 9.18(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쾰링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민스터 교회, 사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 윈스티 교회 순례 후 하이델베르그로 이동, 하이델베르그 고성, 대학가 등 순례 후 보름스(마틴루터가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은곳, 순례 후 호텔 휴식
9일 9.19(화)	프랑크푸르트 아이젠아흐 에어프루트		7:00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괴테하우스, 뢰머광장 순례 후, 아이젠아흐로 이동, 루터 생가, 바르트부르크 고성(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바하 관련 순례후 에어프루트 도착 휴식
10일 9.20(수)	에어프루트 라이프찌히 비텐베르크		7:00	마틴루터가 대학을 다니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에어프루트 순례, 에어프루트 돔, 크레머 다리, 페테스부르크 요새 등 순례 후 라이프찌히로 이동, 바하가 지휘자로 근무한 St. Thomas교회, 통일 독일의 시발점인 쉘름시위로 유명한 St. Nicolas교회 순례후 비텐베르크로 이동, 비텐베르크교회(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곳), 마틴루터와 열광하던 동상, 마틴루터 생가, 박물관 순례후 호텔 휴식
11일 9.21(목)	드레스덴 프라하		8:00	동부독일의 파라라 불리는 드레스덴 관광 후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 석식후 아름다운 프라하의 야경 관광 후 호텔 휴식
12일 9.22(금)	프라하		8:00	(안 후스 종교개혁 관련 순례) 안 후스 기념(베들레헴)교회 순례, 프라하 고성, 대통령궁, 비트성당,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라하 관광 후 휴식
13일 9.23(토)	프라하 LA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라하 출발 LA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후 SWEET HOME 으로...



요한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한 옥스포드대학교



런던에 있는 웨슬리 채플

### 4차 학습여행의 주요 방문도시들

- \*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했던 옥스포드 대학
- \* 칼빈의 후예들이 위그노의 나라 프랑스 파리
- \* 존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생피에르교회와 칼빈 생가
- \* 쾰링글리가 목회하던 취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
- \*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리기 마운트
- \*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은 보름스
- \*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
- \* 루터가 사제가 되고 수도사가 되었던 에어프루트
- \*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루터 생가
- \* 북부의 아테네로 불리는 드레스덴
- \* 루터보다 100년 일찍 교황청의 불의에 도전한 안 후스의 도시 프라하



비텐베르크 마르케트 광장에서 (2차 참가자들)



파리의 에펠탑

문의전화: (213) 383-2345, 이메일: cweeklyusa@gmail.com  
직통 (818) 624-2190  
\*카톡으로 신청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카톡 ID: myungcho2004)



유서깊은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

- #### 참가신청시 유의사항
1. 참가 신청시 성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참가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3. 그룹으로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는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어드립니다

#### 제4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 신청서

신청인 (한글) \_\_\_\_\_ (영문) \_\_\_\_\_

현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Tel \_\_\_\_\_ E-mail \_\_\_\_\_

여권번호 \_\_\_\_\_ 여권만기일 \_\_\_\_\_

동반자 (한글) \_\_\_\_\_ (영문)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동반자 서명 \_\_\_\_\_

Date \_\_\_\_\_

신청서 보낼 곳 : 크리스천 위클리 3700 Wilshire Blvd. #755, Los Angeles, CA 90010